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
성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이 주신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
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
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
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7월 1일 (토) 제 1640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하나님이 정하신 일과 심의 리듬 회복, 휴가!

2017년 본격적인 휴가시즌 맞아 크리스천 여가문화 정립을 위한 제안

올 여름은 날씨가 좋지만 몸과 마음도 무겁다. 국내외로 여러 가지 갈등, 국제적 분쟁, 연일 계속되는 사건 사고들, 치솟는 물가 등을 생각하면 가벼운 마음으로 휴가를 떠나기란 요원해 보인다. 그러나 위기와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고 믿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침어지고 있는 무거운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면 더 큰 은혜 아닌가. 영혼의 진정한 휴식,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여름을 위해, 크리스천다운 휴가 문화 정립에 요구되는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

먼저 안식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또 다시 노동할 수 있는 에너지의 재충전을 위한 휴식에서 안식의 의미를 찾는다. 그러나 이제는 창조를 묵상하고 재현할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는 데서 안식의 의미를 찾아야 할 때다. 다시 말해서,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서 얼마나 많이 생산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생산적으로 일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때다.

“안식”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원죄적 성향을 버리는 것이다. 아담이 태어나 처음 한 일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이었다. 안식일의 히브리어 ‘샤브트’는 ‘중단’이란 뜻이다.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 생산과 성취 노력의 중지다.

유대인들은 해가 뜬 때가 아니라 질 때를 하루의 시작으로 여긴다.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다. 창조주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가 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리는 주일이 첫날이다. 안식은 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기회다. 안식은 필요, 압박, 염려와 긴장을 넘어 설 초월적인 힘과의 접촉을 통해 힘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놓은 일과 심의 리듬을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삶이 병들고 만다. 그러나 현대문화는 삶의 진면목을 알게 해줄 기초인 여가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노동자, 사무직, 전문직 할 것 없이 모두 일에 빠져 ‘전적 노동’의 문화가 됐기 때문이다. 어쩌다 정전이 돼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야만 될 수 있는 문화에선 여가가 가능하지 않다. 결국에는 삶이 찌들고 문화는 파괴된다.

인간은 억지로 짐을 지는 말이나 소와 달리 대개 스스로 짐을 지기에 불평도 못한



여름휴가 기간에도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과 육의 진정한 쉼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다. 잘난 사람일수록 명예, 권세, 책임감, 체면이라는 짐을 더 많이 진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한 노력이나 스스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지나친 수고와 그 많은 부담들을 떠안게 만든다.

오늘날 게으름을 뜻하는 ‘나태’(acedia)는 본래 창조주께서 뜻하신 존재가 되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일컫는 말이었다. 그래서 나태는 안식 없음이며 ‘절망의 자매’라고 했다. 일에 빠져 안식을 저버리는 것도 일종의 ‘나태’다. 악인이 부지런하기까지 하면 가장 큰 재앙이 된다. 나태의 반대는 부지런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본연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평안이고 안식이다. 인간은 자신의 본연을 지킬 때 비로소 여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창조주께서 정하

신 일과 심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다. 쉬지 않고 일해서 돈을 많이 벌며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된다고 노동자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쉬고 잘 때도 하나님께서 삶을 붙들고 계심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성경적 안식은 선택이 아니라 축복이고 명령이며 초대다.

예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이들에게 ‘내게와 쉬라’고 하셨다. 그의 평안은 스스로를 구원하려는(구원할 수도 없지만) 짐보다 가볍고 쉽다고 했다(마11:28-30).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의 갈증을 복음의 생수로 풀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안식을 얻을 수 없다. 안식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있는가에 달려있다.

<4면으로 계속>

재생의학으로 죽은 자를 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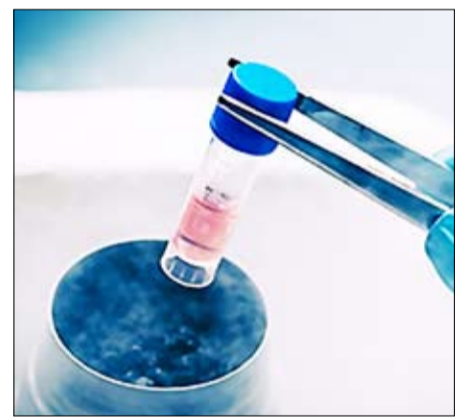
STAT, 뇌사환자에 '만능줄기세포' 주입을 통한 부활 시도 연구 과정 보도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통한 ‘재생의학’의 놀라운 가능성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만큼 오늘날 현대의학과 약학이 개발하고 있는 줄기세포치료의 방법은 인간의 난치병과 노화에 대해 새로운 빛을 던져주고 있다. 즉 치매와 같은 난치성 퇴행성 질환과 염증성 질환, 그리고 간경변이나 암, 손상된 조직의 복구 등에 줄기세포치료를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성과는 한마디로 놀랍다. 따라서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는 “차세대 신성장동력”이라고 불리는 “만능줄기세포(STC-nEPS)” 연구와 임상 시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마디로, 부작용이 없는 만능줄기세포를 통한 임상시험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에 시작될 한 연구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위의 질병들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바로 죽은 사람을 살리려는 것이다. 줄기세포 연구자들은 인간 배아를 복제한다.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생산해내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이고, 인간의 죽음 역시 하나님만이 섭리하시는 영역이다. 그런데 이제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려는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크리스천의 신앙과 대립하고 있다.

건강의학 전문지, “STAT” 통해, 과연 어디까지 줄기세포 주입을 통한 뇌사환자의 부활 시험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Resurrected: A controversial trial to bring the dead back to life plans a restart).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바이오쿼크(Bioquark)사는 줄기세포를 뇌사 환자의 척수에 주입하는 임상시험을 시도하고 있다. 환자들에게는 단백질 혼합물 주사와 뇌에 직접 가해지는 신경 전기자극 및 레이저



위 보인다. 이번 시도가 이들의 첫 시도는 아니다. 지난해 4월, 인도의 루드라퍼에서 이들은 임상 시험을 시도했다. 하지만 패스터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한다. 사이언스에 따르면, 이들은 인도의 약품관리청 허가를

받지 못해 지난 11월 임상시험을 종료했다(그러나 바이오쿼크와 공동으로 연구 계획이었던 인도의 병원 소유주인 히만수 반살은 임상시험이 종료됐다는 사이언스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이 바이오쿼크가 개발한 단백질 혼합물을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지역 의대의 ‘외부 인사’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 (D.Min), 교회음악학박사 (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	---	---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시론 김봉운 목사 2면



아는 게 힘이다 새라김 사모 5면



종교개혁 500주년 조진모 목사 7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8면



브리질 한국인 선교역사 강성철 선교사 14면

www.rptseast.org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 (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특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7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7년 9월 1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7년 9월 2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 강 부흥회 : 2017년 9월 5일(화) - 9월 7일(목)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시론

좋은 아버지



김공운 목사 (백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

미국은 6월 셋째주일을 아버지날로 지킨다.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수고하는 아버지들에게 가족 모두가 감사를 표시하는 날이다. 아울러 아버지들은 더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다짐하는 날이기도 하다. 한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어머니고 그 다음이 아버지이다. 그런 점에서 이 달엔 좋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한 사울의 잘못을 통하여 좋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건전한 자존감(sound self-reward)을 심어주어야 한다. 사무엘상20:30을 보면 사울 왕은 선하고 의로운 아들 요나단을 향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다. "패역부도 계집의 소생아(NIV:son of a perverse and rebellious woman)"(공동번역:몹쓸 화냥년의 자식놈아). 이것은 그가 자기 맘에 안 들면 감정을 조절하지 않고 쉽게 자녀들에게 욕을 하고 살았음을 짐작케 한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키우라고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언어적 학대를 하는 것은 곧 그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상처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누군가가 우리 자녀들을 욕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아버지들은 자녀가 잘못할 때 정당한 방법으로 꾸짖을 수는 있어도 심하게 욕을 해서 안 됨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

부모의 욕은 자녀들에게도 큰 상처가 된다. 부모에게 욕을 먹으며 모욕적인 언어로 학대를 당하는 자녀들은 병든 자존감을 안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쉽다. 그것이 심해지면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이 죄를 짓기도 하고 너무 연약하고 부족함에 돌고우리를 모욕하고 저주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부족할수록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기시고 격려하신다. 범죄로 많은 것을 잃고 낙심하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하신 하나님의 노래는 필자에게 늘 삶과 사역의 의미를 새롭게 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습3:17).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자녀들을 욕하지 않고 힘들 때에도 축복하는 좋은 아버지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둘째,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인격(right personality)을 심어주어야 한다. 삼상 20:32-33에 보면 사울이 바른 말을 하는 요나단(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습니까?)을 죽이려고 단장을 단졌다. 시기와 미움으로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에게 바른 말을 한 요나단의 비명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신앙인격을 짓밟은 아버지의 큰 잘못이었다. 26:4 말씀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instead, bring them up in the training and instruction of the Lord)"고 하신다. 이론에 해당하는 성경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친 성경대로 사는 훈련을 먼저 시범을 보이려는 말씀이다. 만약 자녀는 요나단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사울처럼 자기 맘대로 행동하면 한참 자라는 자녀의 신앙인격을 짓밟아 못쓰게 만드는 격이 되는 것이다. 예배를 마치고 자녀들과 함께 집으로 가려고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작은 접촉사고가 난 경우에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메모를 남겨두는 것은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인격을 심어주는 소리 없는 강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인격을 심어주고 싶어하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신 실적이 아닌가?

셋째,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기쁨과 소망(joy and hope)을 심어주어야 한다. 삼상20:34을 보면 요나단이 이러한 아버지 사울로 인하여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다음 날에도 먹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사울은 세상에서는 왕이었지만 가정에서는 딸들과 아들 요나단을 슬프고 낙심하게 만든 나쁜 아버지였다. 큰 딸 메랍은 다윗에게 주기로 한 약속을 깨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다. 작은 딸 미갈은 다윗과 결혼시키고 곧 그를 죽이려고 했다. 자기의 욕심을 성취하려고 자녀들의 일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너무 쉽게 남긴 아버지였다. 가장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골3:21("아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을 통하여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주는 좋은 아버지가 되라고 명령하신다. 13살에 혈우병에 걸려 수술 중 수술 받은 피로 인해 에이즈에 걸려 투병하다가 18살에 죽은 Ryan White(1971-1990)가 주기 전 남긴 아버지와의 대화를 읽으며 필자는 많이 울었다. 그들의 대화를 끝으로 Ryan의 아버지처럼 자녀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심어주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아들이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아닙니다. 저는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가 제게 준 선물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습니다(실제로 레이건 대통령, 마이클 잭슨 등 유명인들이 찾아와서 선물을 주었음). 아빠는 내게 천국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으며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보다 위대한 선물은 다시 없습니다."

pkim529@gmail.com

자국보호위해 민주주의 기본가치 희생할 각오 있는지?

뉴스위크, 맨체스터 테러 후 다시 불거지는 지구촌 대 테러전략부재 경고와 대안분석(하)

맨체스터 테러(그리고 그 밖의 유사한 공격)가 우리에게 던지는 더 큰 의문은 이런 테러 공격에 대한 글로벌 대책이 있는지는 점이다. 맨체스터 테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범과 극단주의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몰아내야 한다"며 그들의 "사악한 이념을 말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은 두 가지 상반된 접근법을 시도해왔다. 그 직후,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하드 전사들이 미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관련 국가들을 침공했다. 반면 그의 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똑같은 이유로 시리아 같은 나라의 침공을 회피했다.

두 전략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이라크에는 개입하지 않은(하지만 리비아에는 파병한) 프랑스는 지하드의 공격을 유별나게 많이 받았다. 반면 영국과 미국은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 축출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폭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도 비교적 공격을 적게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법은 이제껏 6개 무

이드(Moss Side)도 거기에 포함된다. 아베디가 다니던 맨체스터 웰리 레인지 고등학교의 학교 친구 2명(당시 16세의 쌍둥이 자흐라·살마 할라네)이 2015

슬립 개종자 자말 알-하리트(50·본명 로날드 피들러)였다. 지난 2월 모슬 근처에서 자폭 테러 공격에 목숨을 바쳤다. 알-하리트는 관타나모 만에 수감돼 있었



테러 목표는 폭력이 낳은 홍보효과 통해 무에서 권력 창출하는 것 비대칭전쟁 기본원칙은 적을 공포감으로 몰아 과잉반응하게 만들어

슬립 주류 국가 여행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9-11 이후 미국 내 테러 공격은 거의 모두 자생적이었다. 또한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군주제와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사우디를 테러와의 싸움에서 '확고한 우방'으로 불렀다.

하지만 많은 지하드 전사들이 받아들인 이념을 바꾸지는 못했다. 서방이 죄 없는 무슬림을 학살하고 있으니 진정한 이슬람 추종자들은 힘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2005년 런던 테러범 제자드 탄위르는 자칭 '순교' 동영상에서 "너희들은 우리를 죽이고 있다... 팔레스타인·아프가니스탄·이라크·체첸의 우리 어머니·자녀·형제·자매들을 탄압한다"고 말했다.

12년 뒤 아베디의 여동생 조마나는 웰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오빠는 "도처에서 죽어가는 무슬림 어린이들, 미국이 시리아의 어린이들에게 떨어뜨리는 폭탄을 보고 복수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슬람 혐오주의 캠페인을 펼치는 서방이 미치는 사실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IS 프로파간다의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그런 프로파간다에 반박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IS는 유럽 각지에서 몇몇 특정한 무슬림 공동체의 마음을 사로잡은 듯하다. 브뤼셀 교외의 몰렌비크와 독일 뒤셀도르프는 지난해 유럽 각지에서 테러 공격을 전개한 지하드 세포 조직의 온상이었다. 맨체스터의 모스 사

년 가출해 시리아로 건너간 뒤 지하드 신부로서의 삶에 관한 소식을 매일 트위터에 올렸다.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 신문의 후속 취재에선 당국자들이 과격화 위험이 있다고 현지 아동 350명에게 매질한 사실이 밝혀졌다. 망명한 쌍둥이의 오빠 아흐메드 할라네(24)는 아베디와 함께 맨체스터의 남자 고등학교인 버니지 아카데미를 다녔으며 지난해부터 극단주의와 관련된 영국 입국이 금지됐다.

영국 신문 가디언의 또 다른 보도에선 무장단체에 가담 또는 가담을 시도했거나 IS를 위해 싸우다 사망한 이슬람주의 전과자나 사망자 최소 16명 이상이 모스 사이드 4km 이내에 거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최근 지하드를 위해 싸우다 숨진 모스 사이드 출신은 맨체스터 태생의 무

며 2004년 석방된 후 영국 정부로부터 100만 파운드의 보상금을 받았다.

지역 내 급진주의가 만연하지만 현지 무슬림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무리 중 한 명이 최근의 테러 공격 가담자라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맨체스터 모스크회회의 무사 나크비 사무총장은 "이런 폭탄이 이곳 맨체스터에서 만들어지고 그것도 우리가 사는 동네의 주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 충격적"이라고 뉴스위크에 말했다.아베디와 그의 가족이 다녔던 디즈베리 사원의 전 집사는 아베디를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집안의 아이로 기억했다. "호감을 주는 아이들이었다. 항상 인상을 받았다"고 집사는 보복이 두려우며 익명으로 뉴스위크에 말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유원정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Aviation Management (General Aviation Management & Flight, Aviation Management & Helicopter Flight, Flight Dispatcher, Flight Attendant: Cabin Crew)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L,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2017년 항공학과 신설

국제 항공기 조종사, 헬기 조종사, 항공 운항사, 객실 승무원 양성

본교에서는 F-1 Visa 와 J-1 Visa 를 발행하며 집종영어교육(항공전문영어), 비행 조종 실습 및 항공사에서 인턴십도 가능합니다.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공무원, 교사,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571) 730-4750 / Fax:(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재생의학으로 죽은 자를 살린다(?)

(1면에서 계속)

패스터는 임상시험을 시작할 새로운 장소를 거의 확정했다고 말한다. 이들은 몇 달 안에 남아메리카에서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들이 인도에서 시도한 것과 비슷한 방법을 따른다면, 이들은 20명의 환자를 모집할 것이다. 환자들은 먼저 자신의 지방이나 혈액에서 분리된 줄기세포 주사를 맞게 된다. 그 다음 새 뇌신경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특별한 단백질 혼합물 주사를 척수에 맞게 된다(이는 "BQ-A"라 불리는 혼합물로 바이오퀴크는 흑색종, 외상성 뇌손상, 피부 주름에 대해 이 혼합물의 동물 실험을 마쳤다).

그 후 15일 동안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되도록 신경전 자극과 레이저 치료를 받게 된다. 이들의 회복 여부는 행동과 뇌파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위의 과정은 수많은 질문들을 일으킨다. 먼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이들이 법적으로 이미 죽은 상황이며, 따라서 어떻게 이들의 서류상 동의를 얻어야 할까?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는 심장, 폐 혹은 뇌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을 죽음으로 정의한다) 만약 환자가 살아난다면, 그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게 될까? 환자의 가족들은 극히 낮은 가능성에도 희망을 가져야 할까?

이 질문들에 답을 얻기는 아직 이르다. 패스터도 이를 인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은?' 이라고 묻는다. 환자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지금의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때 가질 수 있는 장기적인 목표일 뿐, 이번 첫 시도의 목표는 아니다."

이들의 성공여부를 말해줄 수 있는 어떤 사례도 존재하지 않으며, 학자들은 오히려 유감을 표하고 있다. 뇌과학자 아리안 루이스와 생명윤리학자 아더 카플란은 2016년 이들의 시도가 "사기의 경계"에 있으며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음을 뿐 아니라, 환자의 가족들에게 "잔인한 가짜 희망"을 준다고 썼다(패스터는 이에 대해 "이런 모험적 연구는 가짜 희망이 아니라 미약한 희망을 준다고 해야 한다"

고 답했다).

바이오퀴크는 위의 4단계 연속 치료를 아직 동물에게도 시도한 적이 없다. 각각의 치료법은 독립적인 치료법으로 뇌졸중이나 코마와 같은 병에 대해 시도되고 있을 뿐이며, 뇌사는 이와는 전혀 다른 상태다.

뇌 혹은 척수에 줄기세포를 주사하는 것은 뇌손상을 입은 아이들 또는 뇌성마비, 근위축성측색경화증 등에 대해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21명의 뇌졸중환자를 뇌에 줄기세포를 주사한, 통제되지 않은 한 연구는 이 주사가 회복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경두개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는 결론이 다



양하다. 몇몇 동물 연구에서 레이저는 뇌세포의 성장을 촉진했다. 그러나 2014년 600명의 뇌졸중 환자에게에 대한 임상 3상 시험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코마 상태의 환자에게에 대한 임상 시험은 현재 진행 중이다. 척수에서 팔을 거쳐 손가락에 이르는 정중신경에 대한 전기자극술 효과에 대해서는 몇몇 근거들이 존재한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에드 쿠퍼는 글래스코 코마 점수가 4점인, 점수가 매우 낮은 환자 12명에 대해 전기자극술을 시도했고, 이들 중 4명이 "충분한 회복"을 보였다고 썼다. 다른 이들은 코마에서 깨어난 후 크고 작은 장애를 가지게 됐다.

그러나 정형외과 의사인 쿠퍼는 자신의 방법이 뇌사 환자에게는 통할 리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는 이 방법은 뇌간이 아직 기능을 하고 있을 때만 유효하다고 말한다. 뇌

간은 운동 뇌신경이 뇌 피질로 가기 전에 거쳐 가는 장소다. 만약 뇌간이 기능하지 않고 있다면 이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패스터도 그 말에 동의하지만 한편으로 그는 뇌사 환자의 뇌간에도 "소규모 뇌세포 그룹"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임상시험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뇌사의 정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이번 시험을 통해 살아난 사람이 반드시 바이오퀴크의 기술로 살아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몇몇 독이나 약물은 뇌사 상태와 비슷한 상태를 만든다. 바이오퀴크는 이번 임상시험에서 해당 지역의 의사들에게 뇌사 여부를 먼저 확인시킬 계획이다.

"우리가 직접 이를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패스터는 각각의 지원자는 지역 병원의 정확한 검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3년간 발표된 38건의 논문을 종합해보면, 미국신경학회의 뇌사 기준을 만족하는 이들 중 뇌 기능을 회복한 이는 한 명도 없다.

이번 시험에 사용되는 간엽성 줄기세포 연구자인 텍사스대학 휴스턴건강과학센터 소아과의사 찰스 콕스는 이렇게 말한다. "이건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가장 말도 안되는, 미친 짓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성공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뇌의 부뇌실(subventricular zone) 세포는 주인이 죽은 뒤에도 성장하는 사실은 발견된 바 있다. 그러나 콕스는 이번 연구에서 줄기세포치료가 새로운 뇌세포와 연결을 만들어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콕스는 일반적인 뇌사 환자의 경우 뇌내 혈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뇌세포가 생존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패스터는 자신의 방법이 성공하리라 생각한다. "나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어떻게 이 모든 방법을 잘 조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적절한 사람들이 적절한 마음으로 이를 시도하게 만들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콕스는 비판적이다. "누군가가 깨어난다면, 그건 엄밀히 말해 기적입니다."

원로칼럼



박중순 목사 (총신교회 원로)

성공 목회란 무엇인가?

필자는 일기를 쓰지 않는다. 학교 다닐 때 방학숙제로 일기를 써야 할 때도 방학이 끝나기 3일 전에 한꺼번에 썼다. 그러니까 그건 일기가 아니라 모조였고 짜깁기였다. 일기란 사실대로 써야 하기 때문에 하루 일과를 끝내고 써야 한다. 그래야 사실과 정직을 지킬 수 있다.

필자가 일기를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1976년 총신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후 3개월이 지나서였다. 서울 목회의 실상과 흔적을 역사적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는 일기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존 일기장은 좀더 싶어 두툽한 대학노트를 구입하고 표지에 '목회일기'라고 대문자로 썼다. 쓰고픈 이야기, 써야 할 얘기가 많았다. 목회일기라고 다들 바 없이 날짜와 그날의 날씨를 쓰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일기를 썼다. 사실 그대로 겪었던 일, 만난 사람들, 주고받은 대화들을 정직하게 써 내려갔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은 두 페이지 넘는 분량이 되기도 했다.

6개월 정도 써 내려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사실대로 정직하게 써야 하는가 였다. 자서전은 얼마든지 포장이 가능하고 미화가 용이하다. 포장지가 화려할수록 멋진 자서전이 된다. 그러나 자기 일을 자신이 쓰면서 허풍으로 메울 필요는 없지 않은가?

또 다른 문제는 보관과 보존의 일이었다. 책상 서랍이나 책장 책갈피 속에 넣어 두면 되고, 본인이 일기를 쓰고 있는 동안은 자신만의 일기가 되겠지만, 훗날 내가 세상을 떠나거나 일기장에 마필표를 찍게 되었을 때 반드시 일기장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일기장을 어떻게 보존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문제였다.

교인들의 눈물겨운 사연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으면 안 될 교인들과의 상담들, 사랑과 격려와 도움을 퍼 준 그 사람 이야기, 아니 그 반대도 있다. 겹침듯 씌어대는 사람,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목사의 심장을 발각 뒤집어 놓는 사람, 위하는 척하면서 목사의 약점이나 허점을 노리는 사람, 이력중저러 쿵 유언비어를 퍼뜨려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사람, 그들 이야기도 날뎌야 써 내려가는 것이 일기의 기본이다. 그러나 먼 훗날 필자의 일기장을 들여다볼 내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리고 그 사실이 당사자들이나 후손들에게 알려졌을 때 그 반응은 어떤까 그것이 문제였다.

얼마 동안 고민하던 끝에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나는 일기를 쓰지 않기로 했다고 선언해 버렸다. 그리고 지금도 일기를 쓰지 않는다.

목회자는 목자여야 한다

옛날에 비해 목회 주변과 여건이 거칠어졌다. 목회자 자신의 책임이 크지만 교인들의 사고가 거칠어지고 행동이 강성으로 치닫고 있다.

필자는 예수님이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서 계시는 그림을 좋아한다. 오래전 성지순례 중 여리고로 내려가다 베드윈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 그들은 수백 마리의 양을 치고 있었다. 예수님처럼 양을 품에 안고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그곳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양 한 마리를 품에 안았다. 흙바닥에서 뒹군 탓으로 온몸은 흙먼지 투성이였고 털은 오줌퐁이 얽혀 황토색이었고 역겨운 냄새 때문에 코를 들 수 없었다. 그날 거기서 필자는 양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더럽고 냄새나는 양을 품에 안고 웃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었다.

목자의 책임은 병든 양은 치유하고, 더럽혀진 양은 정결하게 하고, 싸우는 양은 화목의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평소 필자의 목회신념 중 하나는 '양은 천사고 악마도 아니라는 것'이다. 바르게 이끌면 따라오고, 방치하면 온갖 위험에 노출된다.

필자의 경우 한 주일만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와도 교회가 낯설고 생소하다. 그런 의미에서 1년씩 교회를 비우고 안식년을 누리려 것을 필자는 찬성하지 않는다. 양이 잠잘 때에도 목자는 깨어 있어야 하고, 양이 쉬고 있을 때에도 목자는 파수해야 한다. 양들이 먹이를 먹을 때에도 목자는 먹이를 선별해야 한다. 목자가 탄 데 눈 돌리고 목양을 소홀히 하면 곧바로 그 과장이 목장에 퍼진다.

iamcspark@hanmail.net

자국보호위해 민주주의 기본가치 희생할 각오 있는지?

(2면에서 계속)

그러나 네 자녀 중 셋째인 아베디는 십대 시절 한동안 주기적으로 내향성과 공격성을 번갈아 드러냈다고 집사는 덧붙였다. 동네 '휴앤드레저센터'의 헬스클럽에 다닐 때는 적대적인 성격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누구와도 대화를 즐기지 않았지만 입을 열면 정말 공격적이었다."

물론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개방된 사회에는 사실상 테러 전술에 대한 방어책이 없다는 점이다. 브루스 호프먼이 고전적인 논문 '인사이드 테러리즘'에 썼듯이 테러전술은 약자가 강자를 공격하는 가장 확실한 무기다. 그리고 조지프 콘래드가 '비밀 요원(The Secret Agent)'에서 그 충격적인 새로운 재앙을 다

룬 이후로 줄곧 문명세계를 괴롭혀왔다. 테러의 목표는 단순한 살상뿐 아니라 "폭력이 낳은 홍보효과를 통해 무에서 권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맨체스터 테러 공격이 던진 의문은 여러 모로 볼 때 아일랜드 공화군(북아일랜드 독립을 위한 민병조직)과 붉은 여단(이탈리아 극좌테러 집단)이 앞선 세대에 제기한 의문과 같다. 단지 이념적·현실적 경쟁터가 상당 부분 사이버공간으로 이동했을 뿐이다.

서방 국가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기소 없는 구류 같은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희생할 각오가 돼 있는가? 그리고 계속 극단주의자들을 배출하는 국내 무슬림 사회에 어떻게 대처하려는

가?

IS가 종종 내세우는 목표는 퇴폐적인 서방을 와해시키고 파괴해 이슬람 신정을 펼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더 심각한 위협은 내부에서 비롯된다. 비대칭 전쟁(비대칭 전쟁의 목적은 예상치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적의 취약점을 지향함으로써 비공위 위협을 달성하는 것:편집자주)의 기본 원칙은 더 강한 적을 공포감으로 뒤흔들어 과잉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IS의 공격을 이겨낸 올덴·파리 그리고 기타 서방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맨체스터는 추모 기간 중 회복력과 풍미를 과시했다. 또한 테러범들의 기대만큼 서방이 그렇게 호화롭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알림] 정기휴간에 따라 7월 8일자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을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7 가을 학기 강의 안내

Sept 18-22(9월 18-22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 (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Sept 25-29 (9월 25-29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9 - Dec 1(10월 9일-12월 1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Oct 30-Nov 3(10월 30일-11월 3일) DI Cross-Cultural Teaching and Learn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Chicago, IL

Oct 23-27(10월 23-27일) PM 8061 Pastoral Counseling(목회상담)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jik Lee(이관직박사)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행복한 부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가서 의료선교를 하고 있었던 어느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하도 바깥이 시끄러워서 창문을 열고 내다보다가 많은 것을 생각했다고 한다. 밖을 내다보니 그 선교사님 집 마당에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과 노는 모습이 너무나 재미있고 얼마나 행복하게 노는지 아이들이 이렇게 친진난만하게 행복하게 노는 것을 미국에서는 본 일이 없단다. 이것이다. 너무 행복하게 뛰노는데, 자세히 보았더니 그 아이들이 그 선교사들이 내버린 강통, 쓰레기통을 주워 가지고 그걸 쥐어서 장난감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 내가 내버린 강통을 가지고도 이렇게 이곳 아이들은 행복해 하는데 우리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좋은 장난감 가지고

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다고 고백했다. 말하자면 만족할 줄 아는 정신적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먼저는 당연히 필요한 재산으로 이것은 일할 양식이 절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여유 있는 재산. 그래서 남에게 베푸는 것이다. 주고 싶을 때 주고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여유. 이 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일하라고 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기 위해서 일하는, 그래서 모아둔 여유재산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재산이 있다고 했다. 불필요한 재산, 이 재산 때문에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자기 명예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성경에도 불필요한 재산을 가진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도 나와 있다. 그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다. 대단한 부자인데 행복하지 못했다.

Millionaire Gospel이라는 책이 있다. 백만장자 복음. 거기서 강조하는 게 그것이다. 재산은 축복이다. 그러나 인격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정서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내 가치관이 그것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관리 능력이 없는 재산, 이것이 바로 문제이다. 어느 언론에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을 추적해서 연구해 보니 95%가 다 불행의 길로 들어섰다.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부부도 헤어지고, 부자간에도 문제고, 사회적 지위도 문제고..... 망조가 들었다. 이 불필요한 재산인 것이다. 내게는 있어서는 안 될, 내 인격이 감당 못 할 재산이 있어서, 보라! 부자기간에도 원수가 되고, 부부간에도 원수가 되어 돈 때문에 이혼한다. 돈 때문에 내 인격도 파탄이 나 버린다.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참 좋은 사람인데 돈 몇 푼 손에 쥐면서 그 인생이 아주 망가지고 만다.

가끔 한국에 나가면 택시 기사님들이 아는 것도 많고, 얘기해보면 다들 철학자다. 정치문제 뭐 얘기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잘 하는지 그저 줄줄이 나온다. 그런데 한 번은 가끔 참 보기 흉한 손님이 탈 때가 있다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 뭐 돈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자 하니, 얼마 좀 가진 것 같은데 뒤에 타서는 앞에 있는 기사 보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기사놈이 왜 이러냐 하고. 마치 자기 종부리듯이 그러는 사람이 있단다. 그러면 아니꼽고 메스껍고 치사하고 더러워서 못 견디겠다는 것이다. 속으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돈을 벌어서 가지고 택시를 타고 다니냐?' 이러니 문제가 있다며 한바탕 연설을 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실 그렇다. 그까짓 거 몇 푼주고 택시타면서 큰 소리 치는 거 아니다. 이게 돈 때문에 사람 망가지는 거다.

여러분! 돈 없어 가난하게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돈이 없어 돈이 많아서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많다. 자식에게 많은 돈 물려주어서 자녀들 재산 싸움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재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인격이 감당할 수 없는 불필요한 돈이기 때문이다. 이 교만이 오늘도 세계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소유한 만큼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릇된 철학과 오해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 재산을 주신 목적이 있다.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고, 버는 재미도 있지만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돈은 사용해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다. 돈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니고 사용한 것만 내 것이라는 의미가 부러듯이 그러는 사람이 있단다. 그러면 아니꼽고 메스껍고 치사하고 더러워서 못 견디겠다는 것이다. 속으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돈을 벌어서 가지고 택시를 타고 다니냐?' 이러니 문제가 있다며 한바탕 연설을 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실 그렇다. 그까짓 거 몇 푼주고 택시타면서 큰 소리 치는 거 아니다. 이게 돈 때문에 사람 망가지는 거다.

행복도 하나님께 있다. 세상에 두 가지 부자가 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늘에 많이 쌓아둔 그런 부자가 있는가 하면 땅에다가 쌓아두고 그것도 영원히 쌓아둘 수 있는 줄 알고 땅에만 쌓아두다가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아주 망가져 버리는 불행한 부자가 있다. 비참한 인간, 돈의 노예가 된 인간, 거기다가 목숨을 건 불행한 인간이다. 내게 불필요한 돈 재산이 있는가 살펴보라. 부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자. 지혜로운 부자, 하늘나라에서도 부한 그런 부자, 금생과 내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부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한다.
revpetergang@hotmail.com

푸/른/초/장

호성기 목사
(필라 안디옥교회)



이 시대의 소통의 도구는 SNS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속한 정보를 얻고 삽니다. 상당히 유익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거짓정보, 가짜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교회관련 사이트에 들어가면 갑자기 '현금을 말하든 목사는 전부 가짜입니다. 속지마세요'라는 말이 뜹니다. 문제는 그것이 즉시로 그 사람의 뇌와 가슴에 각인이 됩니다. 교회에 나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현금에 대하여 설교합니다. 그 사람은 '아, 저 목사는 완전 가짜구나'라고 결론 내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선교에 참여하라
교회에서 매년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를 셉니다. '작년 보다는 더 많이 참여했습니다. 작년에는 364명이 단기선교에 참여했는데 올해에는 400명 이상은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왜 교회가 자주 숫자를 셉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에 대하여 비판하고 불평하는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모든 것을 '내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왜 현금이 중요하지 왜 숫자를 세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생각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문동병에서 고침 받기 위하여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야만은 '내 생각에는 내 고향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데 거기 가서 씻는 것이 낫겠다'(왕하5:1-12)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만처럼 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그냥 가짜를 내 생각과 다른면 전혀 따르려는 마음조차 갖지 않고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사 55:9)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내 생각과 달라도 성경을 고지려 하지 않고 내 생각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 즉 '숫자'라는 뜻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유대인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하였습니다. 광야에 3백만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흥해 바다를 건너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은 '민수기' 즉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를 세었다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그 인구조사 목적은 유대인들의 숫자가 많음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생활 하던 유대인들이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형편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음을 열방과 만민에게 선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세게 하신 것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숫자를 셉 것과는 정 반대의 계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 왕인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과시하기 위하여 막강한 군대의 숫자를 세게 하였습니다. 주변의 리더들도 다 반대하였고 특별히 하나님도 싫어하시는데 불구하고 강행하였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서 크게 책망을 받고 대가로 7만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삼하24:15).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계수는 자기 과시용, 자기선전용, 자기를 높이기

위한 계수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하나 세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웃에 술을 달고 그 술 위에 파란색 끈을 달아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민15:39).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잡힌 물고기 숫자를 세게 하셨습니다. 순종의 결과로 얻은 열매가 153마리나 된 것을 계수 하였습니다(요21:11).

오병이여로 하나님이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 기적의 열매는 남자 장정 5천명 이상이 먹고 어린이와 여자는 숫자도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였고 남은 것이 12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계수하였습니다(마

14:20). 예수님은 내가 내 머리털의 숫자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도 나의 머리털의 숫자도 다 세시는 하나님 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마10:30). 나의 형편과 처지와 나의 삶을 나 자신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포로 하나님은 숫자를 세십니다. 숫자를 세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선포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철저히 계수 하십니다.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숫자를 세게 하신 것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 중 레위지파를 제외한 11지파의 20세 이상 된 남성의 숫자를 세게 하셨습니다. 그 숫자를 세니 605,330명이었습니다(민1:46). 이 숫자를 근거로 학자들이 여리나 이와 여자들까지 다 합하면 족히 3백만명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20세 이상 된 남자는 칼과 창을 잡고 약속의 땅을 점령하

고 두려워한다는 물질주의적 여가문화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고 자유 할 수 있다면, 삶의 순간마다 주어지는 짧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삶의 기쁨과 영적 성장을 도모 할 수 있다. 독서나 음악 감상이건, 영화, TV 등 대중문화를 통해서건, 스포츠 활동이나 취미 활동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임을 인정하

기 위하여 앞장설 사람들의 숫자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3백만명을 대외적으로 보호하고 가나안의 7곱 족속들과 전쟁을 하기 위한 군사로 세움 받을 대표성 있는 사람들의 숫자 계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는데 앞장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앞장서서 이끌어 나갑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이 포로로 단까지 끌려갔을 때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정병 318명과 함께 가서 롯을 구출하여 돌아왔습니다.

구원에 감격하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점점 더 숫자가 많아져야 합니다. 20세 이상된, 즉 힘을 쓸 수 있을 때 구원에 감사하여 단기선교에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사6:8)라는 사람의 숫자가 매년 점점 늘어나야 합니다. 그 대표성 있는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를 세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앞장서서 영혼을 마귀의 손에서 구출하여 나가는 대표성

으로 헌신하여야 합니다.

헌신자의 숫자를 세게 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레위인의 숫자를 세게 하였습니다. 레위인은 유대인이 출애굽 할 때 여린양의 피의 흔적으로 모든 초태생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 백성 가운데 초태생으로 구별 받은 지파였습니다. 모든 초태생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처럼 레위인도 장남으로 택함 받아 성막에서 온전히 다 된 모든 지파를 대신하여 섬기게 하셨습니다.

레위인의 계수는 처음 태어난 장남 중에 1달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전부 세었습니다. 22,000명이었습니다. 다른 11지파의 초태생으로 1달 이상 된 남자를 세웠더니 22,273명이었습니다. 레위인 초태생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 초태생 1사람 씩을 대속하여야 하는데 273명이 더 많아 레위인으로서 할 수가 없

었습니다. 그래서 273명은 한 사람 당 5세겔의 속전을 내게 함으로 값을 치르게 하였습니다. 레위인의 숫자 계수는 대속성의 헌신을 하는 숫자 계수였습니다. 레위인은 성막에서 봉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하지 않게 대속적인 헌신을 하라고 구별 받았던 것입니다(민 8:19).

레위의 아들은 3명이었습니다. 므라리, 게르손 그리고 고핫이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만 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하여 대속적으로 섬기게 하였습니다. 므라리와 게르손의 아들들은 성막을 소와 수레에 싣고 옮길 수 있도록 소와 수레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을 어깨에만 메고 옮기는 임무가 주어졌기에 소와 수레는 주어지지 않고 오직 어깨로 성물만 메고 가게 하였습니다.

성막중심으로, 즉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이 시대의 대속적인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 안

에서 봉사하실 분들의 숫자도 계수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들의 숫자는 경험과 육신적인 능력이 있는 30세에서 50까지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황금기에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분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속적인 봉사와 헌신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여야 합니다. 다 구원 얻은 것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순종은 참여로 나타나
마지막으로 이 레위자손이나 다른 모든 지파의 가문의 지도자들이 가문을 대표하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게 하였습니다. 순종은 참여입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에 제외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순종의 대표성', '구속의 대속

성'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과 성도는 자원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합니다. 이 레위자손도 성막에서 섬길 때 남자 25세 이상 된 자들이 다 섬기게 하였습니다. 명단에 올라가는 자는 30세부터인데 25세 된 자들은 명단에 올라가지는 않아도 5년 동안 30세 이상 된 형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을 도제(apprentice)처럼 보고 그대로 봉사하는 기간을 주어 섬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실행하여야 할 제도와 같은 것입니다. 젊은이들을 도제처럼 미리 훈련받으면서 섬기게 하였고 30세가 되면 정식으로 성막에서 섬기는 자의 명부에 올랐던 것입니다.

50세가 넘으면 성막을 옮기던지 성막안의 성물을 옮기던지 하는 일은 그간두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50세 이상 된 레위인은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멘토링입니다. 50이 넘으면 육신이 연약하여서 직접 몸으로 섬기는 봉사는 못하지만 몸으로 헌신하는 후배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노후유를 잘 전해주는 멘토로 섬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즉 교회안의 봉사는 몸으로 직접 뛰는 젊은이들도 필요하지만 경험 없는 자들에게는 미리 배우면서 봉사할 수 있는 도제 같은 기간도 주고 나이 많은 은퇴하신 분들은 몸으로는 직접 교회 안에서 봉사는 못하여도 몸으로 뛰며 봉사하는 분들을 위하여 멘토로서 기도하여 주고 지도하여 주는 빅 브라더(BIG BROTHER) 같은 자들로 계속 봉사 헌신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사6:8)하는 대표성 있는 헌신자의 숫자를 계수 하십시오. 교회 내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신본주의의 신앙인의 숫자를 계수하시며 저들을 통하여 다른 성도들이 본을 받고 따라오게 하는 대속성의 헌신자의 숫자를 계속 계수하십니다. 나아가 어떤 어떤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순종으로 참여하는 헌신자의 숫자를 계수하십니다.

우리로 받은 복을 세어봅시다. 받은바 은혜에 주님께 감사로 순종합시다.

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막든지 막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10:31)는 사도바울의 권면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 자유롭고도 책임적인 존재로 이번 여름휴가를 보내는 크리스천들이 더욱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
(편집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민수기 4장 34-49절)

(1면에서 계속)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할 때 안식과 평안이 찾아온다. 오락이나 여흥으로 안식을 대신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쉬는 날만 기다리다 야외로 나가 노는 것도 오히려 일과 안식의 리듬을 교란시킨다. 창조질서의 리듬을 따라 일과 쉬 모두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다. 인생에는 일보다 중요한 것

들이 많다. 하나님과의 평안 속에 안식을 누리는 것이 그 중 제일이다. 결국 현대의 삶은 너무 풍요로워서, 우리는 우리의 풍요로운 삶으로부터 해방 받고 우리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머리에는 각종 정보로 가득 채워져 있고, 우리의 삶은 행동으로 바쁘고, 우리의 도시는 자동차로 메워져 있고, 우리의 생각은 허상 위에 떠돌고 있고,

우리의 관계는 너무 많은 조연으로 무겁고, 우리 직업은 끝없는 새 기술 습득으로 무거운 짐이 되고, 우리의 집은 편리한 가전기구들로 흐트러져 있다. 우리의 우상은 생산성이며, 비생산성은 생의 실패로 여기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안 속에 거하는 휴가야말로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진정한 여가 문화다. 따라서 특정한 장소나, 돈을 지불

하고 누려야한다는 물질주의적 여가문화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고 자유 할 수 있다면, 삶의 순간마다 주어지는 짧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삶의 기쁨과 영적 성장을 도모 할 수 있다. 독서나 음악 감상이건, 영화, TV 등 대중문화를 통해서건, 스포츠 활동이나 취미 활동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임을 인정하

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힘쓴다면 여가는 일(work)과 예배(worship)라는 삶의 리듬 속에서 우리는 더욱 풍성할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무한경쟁의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시간이 일과 돈을 위한 활동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열린 사람과 봉사의 시간으로 채울 수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의미의 성숙한 여가를 향유하

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힘쓴다면 여가는 일(work)과 예배(worship)라는 삶의 리듬 속에서 우리는 더욱 풍성할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무한경쟁의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시간이 일과 돈을 위한 활동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열린 사람과 봉사의 시간으로 채울 수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의미의 성숙한 여가를 향유하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1. 동성애 인권단체 압력에 굴복하지 않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야구팀

미조리주에 있는 카디널스(Cardinals)라는 야구팀은 지난 30년 동안 “크리스천 데이(Christian Day)”라는 날을 축하하는 행사를 매년 갖고 있는 팀이지만 “크리스천 야구팀”은 아닙니다. 지역상 그저 크리스천 선수들이 많은 메이저 야구팀이지요.

이 팀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크리스천 데이 행사계획을 세우고 7월 30일로 정해진 행사를 위해 카디널스 팀의 스타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도 잘 알려진 란스 벌크만(Lance Berkman)이라는 은퇴한 전직야구 선수를 스피커로 초청했습니다.

에 혐오자”라는 낙인을 받고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고요. 하지만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곧은 신앙과 용기 있는 신앙생활을 실천수범하는 멋진 선수인 것이지요.

황당무례한 제안을 카디널스 팀에게 한 세인트루이스프라이드



그런데 카디널스팀의 이런 결정에 동성애 인권운동단체로 알려진 세인트루이스프라이드(St. Louis Pride)가 적극항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크리스천 데이”라는 행사를 완전히 취소하든지 아니면 이번엔 오기로 한 벌크만을 스피커로 세우지 말라는 압력을 가했습니다.

벌크만이라는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벌크만은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남녀화장실의 성별을 없애고 남녀들이 혼용하는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로 바꾸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던 당시, 텍사스 휴스턴까지도 오바마의 명령을 쫓으려고 했을 때 자신은 그런 명령에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던 크리스천 중 한사람입니다. 당연히 그 발언 이후 벌크만은 미국 전역의 동성애 운동단체들과 진보자유주의 정치인들로부터 “동성

민주주의적인 발언과 제안을 받은 카디널스 야구팀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비록 크리스천 야구팀은 아니지만 그들은 세인트루이스 프라이드 동성애단체의 항의에 전혀 굴복하지 않고 크리스천 데이 행사와 벌크만의 신앙까지도 방어해주며 다음의 성명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카디널스 메이저 야구팀은 한도시의 단체로서 카디널스와 같은 생각을 가진 그룹을 모아서 카디널스 야구의 통합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들과 단체들에게 모

두 열려있으며 그들의 참여와 파트너십을 환영한다. 우리는 사회의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도록 노력하고 기독교의 날뿐 아니라, 유대인 커뮤니티의 밤, 천주교 가족의 밤, 보스니아 유산의 밤, 남미축제 등의 여러 색다른 행사를 주최해왔다. 앞으로 우리는 LGBT 커뮤니티도 카디널스 야구 게임을 즐기도록 할 계획이지만 다른 행사를 취소하고 동성애단체만을 위한 행사를 하라는 것은 우리 팀의 가

기준”은 매우 “이기주의적인 기준”이며 오바마시절 때부터 애용한 “정치적 권력”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두 가지를 알고 기도하며 대해야 합니다.

하나는 인권운동단체들의 “정치적 성향과 권력”에 지혜롭고 담담하게 맞서야 하지만, 동시에 진짜 자기 자신을 동성애자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평범한 동성애자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사랑과 인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심리, 정신적 의학조사 및 가정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불우한(폭력적, 성폭행 등등) 가정에서 자라나(98%)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리더의 자리까지 있다고 해도 지난 8년간 오바마정부의 친동성애 학교 교육과 그 생산물인 친동성애 문화, 유행 속에 혼돈되어 자신을 동성애자로 착각하고 있는 자녀들이 자주 늘어가고 있는 현 사회문화 현상들을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천들은 우리 다음세대들이 속고 있는 “거짓의 영” “혼돈의 영”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며 실제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더 더욱 힘써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정치적 권력을 사용하는 동성애 인권운동단체들과 자유 진보주의 정치인들의 편협함과 비뚤어진 기준,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잣대에 대하여는 맑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시민)에게 주어진 목소리를 높여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취향에 맞지 않을 경우 폭언과 폭력을 불사하는 사례들은 이미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지난 8년간 증명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다양성, 사랑, 관용의

와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어서 매우 기쁘다”라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2016년 대통령 대선 때 많은 보수 미국시민들의 최고 관심사는 “헌법주의 판사, 보수성향의 판사”를 임명하는 대통령을 선임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그들의 약속을 지키고 있어서 극과 극의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보수시민들은 고마움의 박수를 치며 “Keep up the good job”을 외치고 있으며, 반면에 미디어를 포함한 자유 진보자들은 또 한번 트럼프대통령에게 맹공격을 가하며 보수 판사들만 뽑는 것은 미국을 위협에 빠뜨리는 결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줄 수 있는 영향력은 얼마나 중요한?
오바마케어를 법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Case Western Reserve 법대 교수인 Jonathan Adler는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 자격과 impressive한 지능을 가진 최상급 판사 후보자들을 계속 지명하고 있기에 매우 기쁘다. 최근의 어떤 대통령보다 더 많이 현재와 전직 학계를 함소판사로 선택하는 것이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 후보자들이 미연방법원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은 거대할 것이며, 그동안 무너진 미국을 회복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지난 8년간 겪었듯이, 미연방 판사들은 미국의 도덕, 윤리, 신앙적 가치관까지도 좌우하는 힘을 갖고 있기에, 그 영향력은 곧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좌우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헌법을 존중하는 전통, 보수적인 판사들이 뽑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며 기도응답일 것입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선택사상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 유기 즉 버린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때가 많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 많은데 그렇다면 과연 나는 택한 사람이 맞는지요.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표시는 무엇입니까?
-사우스베이에서 김

A: 선택교리는 성경의 제일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9장에 바울은 선택사상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명적 선택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좋은 예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삭은 본처에서 난 약속의 아들이요 이스마엘은 첩으로 부터 난 육신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택하시고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택한 백성임을 의심치 말아야

계란이라고 다 병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정란만 병아리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잘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형제님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택한 백성임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택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 속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은 믿고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습니다. 1%도 의심이 안됩니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태양이 빛을 비춥니다. 열음은 태양이 비추면 녹아내립니다. 그러나 진흙은 똑같은 태양이 비추어지는데도 더 굳어집니다. 사람도 2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2가지로 갈라집니다. 한 쪽에서는 회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강퍅해집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받은 증거요 반대로 말씀을 듣고 강퍅해지면 택함 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실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더 굳어지고 강퍅해졌습니다.

십자가 옆에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두강도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은 죄나 상황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두강도가 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말씀을 하시자 한 강도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녹아지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강도는 더 발악을 하면서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이것이 선택입니다.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한 사람은 회개하여 구원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마음이 강퍅하여 버림을 받았습니다.

2. 대선 공약대로 보수적 판사들을 계속 선택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과 다음세대의 총체적인 회복을 위해 밤낮 쉬지 않고 공식적으로 기도했던 성도들의 통곡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해주시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미국의 미래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자신이 대선전에 기독교인들과 만든 약속을 거침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전국에서 미연방법원에 임명될 9명의 새로운 연방 판사 후보자 명단을 상원에 제출했는데 이들은 거의 모두 보수 판사들입니다.

이 명단은 대통령이 상원에 제출한 두 번째 판사 임명 명단인데, 백악관은 트럼프대통령이 앞으로 3명의 사법 후보자를 더 뽑을 것이며 매달 공식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명단에 있는 판사들 중 가장 잘 알려진 후보들은 10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 함소 법원의 Allison Eid 판사, 제 8th Circuit의 Ralph Erickson 판사, 그리고 현재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법과교수를 하고 있는 Stephanos Bibas 박사가 3rd Circuit 판사로 임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 전체 리스트를 보시기 원하시면 Tvnex.org로 가시기 바랍니다.

트럼프대통령이 지명한 미연방법원 판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수주의 변호 그룹으로 잘 알려진 Judicial Crisis Network의 수석 고문인 Carrie Severino는 “후보자들의 대부분은 이미 보수 법적 이슈들로 여러 방면에서 뛰고 있는 인물들로 그들의 경력과 실력은 법률단체들 사이에서도 미현법에 대한 깊은 이해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2018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8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하고자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7년 9월 30일 / 광고 접수마감 2017년 9월 30일**

출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000.00
		Inside	\$1,0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800.00	
(칼라)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전면1/8	15.5 × 2.8cm	\$250.00	
	7.7cm × 5.8cm		
출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무료리스팅신청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NY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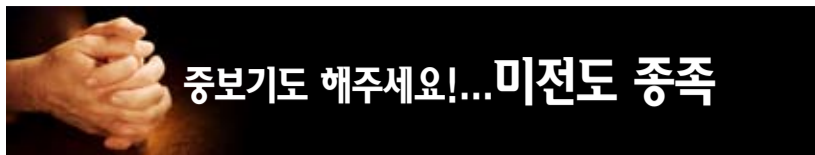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분델칸디(BUNDELKHANDI)



인도는 인종적, 언어적, 종교적, 사회적 여러 집단들이 복합적으로 모인 하나의 모자이크와 같다.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어떤 하나의 민족집단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로 중국 다음 순위를 차지하는 인도의 인구는 9억3천5백만 명 이상이다. 전체적인 인구밀도는 1평방 마일당

762명이다. 인도는 4개의 주요 지역으로 나뉘질 수 있는데, 히말라야 산맥, 북부 하천의 평야 지역, 데칸 고원, 동서부 가즈 산맥이 있다. 다양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기후조건 또한 계절과 지역에 따라 열대기후에서 온난기후까지 매우 다양하다. 1억1천5백만 인구의 분델칸디족은 주로 마다 프라데시에 거주하고 있고 그 외 자라운, 잔시, 하미르푸 그리고 우타 프라데시의 반다지 지역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인도-아라얀(Arayan)어를 사용하지만 그들의 정확한 생활양식과 문화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삶의 모습
인도 인구의 73%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한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겨우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수확하는 농부들이다. 농지는 극히 작으며 대개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다. 가축, 특히 뿔이 있는 소, 물소, 말, 노새 등을 키우는 것은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힌두교의 영향으로 이러한 동물들은 고기로 이용되기보다는 거의 전부가 짐을 지는 짐승들이다.
인도 문화는 기본적으로 힌두교 중심적이다. 많은 힌두교 조직들은, 엄격한 "카스트"(caste, 사회계급) 제도를 포함해 세속적 인도 사회에도 폭넓은 영향력을 지닌다. 카스트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혈통, 종족, 족속을 의미한다. 인도 사회는 일반적으로 "동족결혼"(같은 카스트 안에서만 결혼하는 것)을 하는 위계적인 카스트들로 나뉘어

져 있다. 카스트는 직업이나 친족 관계와 혈통에 의해 규정되나, 약간의 예외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스트는 사회 조직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부족사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다. 카스트 제도에서의 분델칸디족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양식은 적절하게 묘사될 수 없다.
다수의 분델칸디족이 살고 있는 우타 프라데시는 인구밀도가 평방 미터당 1,224명으로 인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우타 프라데시에는 힌두교 성지 7개 중 4개(하리드워, 마주라, 바라나시 그리고 아야다)가 있다. 아야다는 7세기경 "라마(Rama)"-신 '비슈누'(우주의 주재자)-가 육신을 입고 태어난 곳으로 많은 힌두교도들이 믿고 있는 곳이다. 무슬림들도 바브리 모스크가 1500년 초에 그곳

에 세워졌기 때문에 신성한 곳으로 여겨고 있다.
신앙
분델칸디는 95%가 힌두교도이고 기본적인 힌두 문화와 전통을 따르고 있다. 약 AD 1200년에 "힌두교"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힌두교가 믿는 것을 분명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 종교는 창설자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교리 구조도 없다. 그것은 이론보다는 오히려 생활양식에 대한 부분이 많으며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이다. 서양종교와 반대로 힌두교는 기원도 없고 믿음이 고정돼 있지 않다. 관습과 생활양식이 수백 년간 매번 큰 변화를 통해 된 신앙이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힌두교도들은 최고의 존재를 믿는다. 일부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경의하고 오직 야채만 먹는다. 반면 어떤 이들은 사원에서 희생 제물

로 바쳐진 고기를 즐긴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종교가 매우 밀접한 것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다. 또한 대부분은 힌두교도들은 "브라만"(창조자), "시바"(멸망자), "비시누"(보호자), 신적 존재인 "샤크트리"를 예배하고 또한 다른 작은 신들, 만신과 환생, 배우자들, 자식들을 경배한다. 환생에 대한 믿음은 힌두교의 특징으로 잘 알려진 것들 중 하나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분델칸디인은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예수" 영화를 갖고 있다. 그러나 번역된 성경은 없다. 소수의 분델칸디 크리스천들에게는 격려 받고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 걸어 가도록 도울 제자화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 귀한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 기도과 사명자들이 요청된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이라크 기독교인들, "날 죽인 당신에게 사랑을..."

이라크 기독교인들의 아가페 신앙이 주목 받고 있다. 일부 극단적인 무슬림의 테러와 탄압에도 신앙을 지키며 끝없이 용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온라인 뉴스 사이트 로마리포트는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속담인 '그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지면 우리는 그들에게 빵을 주겠다'는 표어를 내세우며 기독교 재건에 힘쓰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라크 기독교인들은 잦은 테러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해에만 무려 1만7000여명이 테러로 숨졌다. 바그다드와 같은 도시에서는 거의 매일 습격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2016년 7월 바그다드 폭탄 테러는 가장 심각했던 사건이다. 자살 폭탄 트럭이 카라다(Karrada) 소광구역으로 돌진해 150명 이상이 숨졌다. 부상자는 200명이나 나왔다. 극단적인 수니파 테러집단 이슬람국가(IS)는 같은 해 5월 아이스크림 가게를 습격해 20여명을 살해하기도 했다.

이라크는 사도 도마가 1세기에 복음을 전한 곳이다. 그러나 이슬람근본주의가 득세하면서 이라크는 잦은 전쟁과 경제적 불안정에 시달렸고, 그 결과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라크를 떠났다. 2003년 100만 명이었던 이라크 기독교인들은 현재 2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슬람근본주의의 박해를 피해 모술에서 바그다드로 이주한 '예수성심전교수녀회(Missionary Sisters of the Sacred Heart of Jesus)'의 경우 한 교구에 600명이 있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세 명 뿐인 교구도 있다고 알려졌다.

이라크 기독교인들은 역경에도 낙담하지 않고 있다. 상황은 어렵지만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올 것으로 믿고 있다. 이들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에 대해 테러행위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사랑할 수 없는 이까지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실천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미국인 절반 식사 전 기도

미국인의 절반 정도가 식사 전 기도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종별로는 식전 기도를 한다고 대답한 흑인의 비율은 80% 정도였고 백인은 그 절반인 40%에 불과했다.



워싱턴포스트와 보건전문 비영리단체 카이저 가족재단은 지난 4월부터 한 달 간 무작위로 1686명의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인의 48%가 최소한 1주일에 수 차례 식전 기도를 한다고 응답했다.

인종별로는 흑인의 식전 기도 비율이 가장 높았다. 10명 중 8명 정도가 식전기도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히스패닉의 경우 10명 중 6명 정도였고, 백인은 10명 중 4명이었다.

정치적 성향으로는 공화당 지지자의 식전 기도 비율은 62%로 민주당 지지자의 식전 기도 비율(43%)보다 높았다. 기독교도의 식전 기도 비율은 약 60%로 52%에 그친 가톨릭 성도의 식전 기도 비율보다 높았다.

뉴욕의 리더머장로교회 설립목사 팀 켈러는 "식사 전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누군가의 은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해마다 기독교인이 급감한다는 위기의식에 빠져있다. 온라인 매체 세이지오픈은 지난해 "하나님을 믿거나 기도를 하는 미국인들의 수가 2014년 사상 최저치였다"면서 '2014년 단 한 번도 기도를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가 1980년대에 비해 5배나

높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교파 세분화로 인한 외곽교과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의 종교연구가 고든 벨턴 교수는 "주요 교파들이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성도들을 잃은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내 교파의 수는 1960년대 이후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뜻밖의 승리... 힘 받은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인 조지아주 제6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뜻밖의 역전승을 거뒀다. 21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선거에서 공화당의 캐런 헨델(55·여)이 51.9%를 득표, 48.1%를 획득한 민주당 소속 존 오소프(30)를 이겼다.



트럼프는 보궐선거의 후미부를 선출하기 위한 이번 선거는 트럼프 행정부 국정운영 신임투표, 내년 11월 중간선거 전조적으로 워싱턴 정가는 물론 전국민적 주목을 받아 왔다.

앞서 오소프는 지난 4월 1차 투표 당시 공화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이곳에서 과반에 육박하는 48.1%를 득표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마이클 펜스 부통령,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 거물이 행렬 구하기에 나섰다. 반(反)트럼프 성향의 할리우드 배우들은 오소프 지원유세를 이어갔다. 전문학적인 선거자금인 5500만 달러가 투입된 세기의 선거는 결국 공화당의 수성으로 막을 내렸다.

여기에 같은 날 실시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제5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도 공화당 후보 펠프 노먼(51.1%)이 민주당 후보 아치 파벨(47.9%)을 눌렀다.

러시아 스캔들에 휩싸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승리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과 공화당의 거대한 승리'라는 폭스뉴스의 평가를 옮겨 읽는가 하면 '가짜 뉴스와 돈도 쓸모없었다'고 민주당을 조롱했다. WP는 "민주당의 반트럼프 캠페인이 타격을 입게 됐다"고 평가했다.

살아남기 위해 이집트 빌려 쓴다...

정부군과 이슬람국가(IS) 추종세력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마라위에서 일부 기독교인들이 무슬림들로부터 빌린 허잡을 쓰고 도시를 탈출하고 있다. 또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현지 주민들이 담요나 종이 박스를 먹는가 하면 정부군을 상대로 한 인간방패로 사용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현지 증언이 나왔다.



영국 언론 인디펜던트는 지난 18일 시민 1500여명이 고립된 마라위에서 기독교인들이 IS 추종세력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무슬림들에게 허잡을 빌려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라위에서 탈출한 주민들의 심리치료 책임자인 지오이아 앤테타씨는 "일부 무슬림들이 기독교인 노동자들에게 허잡을 빌려준다고 한다"고 전했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현재까지 100여명의 주민들이 강을 헤엄쳐 건너는 등 목숨을 걸고 마라위에서 탈출했다.

마라위에 고립된 주민들의 열악한 상황도 알려졌다. 현지 정치인 지아 알론토 아디옹씨는 "일부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 담요나 박스로 연명하고 있다"며 "박스를 조금이라도 연하게 만들기 위해 물에 담갔다 빼서 먹고 있다"고 밝혔다.

마라위는 이달 초 IS추종세력인 마우테 그룹에 점령됐다. 정부는 이들을 소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마라위에 포탄을 투하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마라위 주민들이 인간방패로 사용되

고 있다고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IS 테러에도 무슬림 식탁 차린 이집트 기독교인들

이집트에서 이슬람 과격단체의 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단식을 하는 무슬림 이웃들을 위해 매일 식사를 제공해 놀라움을 주고 있다.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협력해 단식일 동안 매일 무슬림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최근 로이터 통신의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

중년의 크리스천인 다우드 리야드는 2주전 자신의 집 근처 거리에 테이블을 마련했다. 그는 단식 쉬는 시간인 이프타르에 배고픈 무슬림 행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집에서 요리한 음식들을 내놓았다. 이슬람교의 금식기간인 라마단은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했다.

무슬림 주민 타레크 알리는 "그가 나와 아이들을 식사에 초대했을 때 매우 놀랐다"며 "크리스천 이웃들이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테이블로 불러 주게 해주었다"고 감사해 했다.

리야드가 사는 지역의 기독교 가족들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화합하기 위해 매년 힘쓰고 있다. 그들은 라마단 기간 동안 함께 음식을 준비해 매일 무슬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리야드는 "우리 모두 같은 광장 안에 산다"면서 "전부 나의 형제들이고 친구들"이라고 말했다.

콕트교는 이집트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기독교 종파로 9400만 여 명의 이집트 인구 중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콕트교의 수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극단적인 수니파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무장 강도가 이집트 수도권을 여행하는 콕트인 단체를 공격해 29명이 사망했다. 이슬람 과격단체들은 교회에 폭격을 수차례 가하는 등 실 새 없이 공격을 퍼붓고 있다.

동성애자 감독 선출 미감리교 지방회 재정 위기

미국연합감리교(UMC) 최초로 동성애자 감독이 취임한 마운틴스카이 지방회(are)가 전례 없는 재정 위기에 빠졌다고 지난 22일 크리스토포스트가 전했다.



UMC는 지난해 7월 동성애자인 캐런 올리베토(사진) 목사를 마운틴스카이 지방회 감독으로 선출했다. 해당 지방회는 중서부 콜로라도 주 덴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지방회가 소속된 옐로우스톤콘퍼런스 보고서에 따르면 올리베토 감독 취임 이후 지방회 재정 수입이 급감했다. UMC 소속 보수 성향의 민주주의와종교연구소 제프 윌트 소장은 "해당 지방회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 3만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며 "올 들어서는 매달 2만5000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윌트 소장은 "올리베토 감독이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아니지만 주요 원인은 맞다"며 "마운틴스카이 지방회의 가르침은 정통 감리교의 웨슬리 신앙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UMC는 지난해 7월 15일 애리조나 주 스코츠데일에서 열린 총회에서 샌프란시스코글라이드메모리얼교회 담임인 올리베토 목사를 마운틴스카이 지방회 감독으로 선출했다. 당시 올리베토 감독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혔음에도 88표의 찬성을 얻어 최초의 동성애자 감독으로 당선됐다.

교회 부흥을 돕는 5가지 방법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도 수가 늘면 정말 성장한 걸까. 크리스천투데이가 21일 교회의 성장을 도울 5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양적 성장에 집착하면 부흥할 수 없다'면서 기독교적 공동체의 기본에 충실하라고 조언했다.

크리스천투데이에는 많은 교회가 성도 수 증가에만 집중해 성도들의 영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가 낫거나 작은 교회는 망한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양적 성장에만 몰두한다는 설명이다. 매체는 기독교적 이고 매력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는 방법을 정리했다.



첫 번째로 교회 밖으로 나가 보라고 조언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다양한 환경에서 만나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두 번째로 교회 스스로 사회 공동체의 믿음직한 일원이 되라고 했다. 교회도 세상의 일부다. 교회 안에서 설교만 해선 안 된다.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로 기본에 충실하라고 강조했다. 사람은 누구나 조직에 속해 보호를 받고 싶어 한다. 모든 성도가 소속감을 느낀다면 교회는 결속력이 높은 공동체가 된다. 그런 교회라면 처음 방문한 성도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네 번째로 믿음과 삶을 연결하는 설교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설교 본문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의미하는지, 혹은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지에 대한 질문을 항상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특별히 마지막 질문을 통해 성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해야 한다. 성도들이 설교를 월요일 삶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라고 조언했다. 세상과 다르지 않은 교회는 의미가 없다. 교회는 성도들이 삶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기도와 목양으로 예수를 기억하게 하라. 이는 교회를 세상과 차별화시킨다.

크리스천투데이에는 "교회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면서 "교회가 양적 성장에만 몰두하거나 한 영혼을 전도 목표로 삼는 일은 적절치 않다"고 조언했다.

"우리 교회는 어디?" 죽어가는 교회 6단계

세계 최대 기독교 자료 공급사 중 한 곳인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서치'의 총재이자 교회연구가인 톰 레이너 박사가 죽어가는 교회의 6단계를 설명했다. 그는 무관심이 교회 죽음의 시작 단계라고 강조했다.



레이너 박사는 지난 19일 크리스토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내년에 미국에서만 최대 1만개의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라면서 사라지는 교회들의 공통적인 패턴을 6단계로 정리했다.

첫 번째 단계는 무관심이다. 성도 수는 좋고 있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복음은 더 이상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두 번째 단계는 교회 내부의 문제를 인식한 후에 시작된다. 교회의 대처는 잘 통하지 않는다. 비효율적인 방법을 고수하거나,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낼 특효 프로그램을 찾는다. 혹은 새 목회자를 세우자고 주장한다. 근본적인 변화 보다 단기적으로 모면할 방안만 찾는다.

세 번째 단계에 접어들면 심각해진다. 성도들은 두 번째 단계에서 선택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젊은이들은 과거 방식을 고수하는 교회에 분노하고 이를 표출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 성도들은 교회를 빠져 나간다. 다른 교회로 떠나지 않은 성도들조차 결석이 잦아진다. 사기가 저하되니 교회는 혼란에 빠진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남아있는 사람들이마저 자포자기에 빠진다. 자연스럽게 여섯 번째 단계인 교회의 몰락으로 이어진다.

레이너 박사는 최근 6단계의 진행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전에는 13여 년에 걸쳐 교회의 몰락이 진행됐는데 지금은 10년 이내로 단축됐다는 설명이다. 또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살아나는 교회는 극소수인 만큼 문제를 인식한 순간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회

교회는 사회를 떠나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는 사회를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다. 우리의 사명은 물과 기름과 같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안에 존재 하면서도 세상에 동화되지 않은 채 영향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교회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의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이는 복음을 전할 받은 자가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의무이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이다.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거나 타국 땅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다. 주님은 교회를 향해 '이웃 사랑'을 명령하셨다. 이 귀중한 사명은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칭의론

루터의 종교개혁은 칭의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가 중세 로마가톨릭교회를 대항하였던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회복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의 칭의론이 있었기에, "교회가 설 수도 있고 넘어설 수도 있는 믿음의 조항"이라고 선언하였다. 성경적 칭의론은 그가 목숨을 내걸고 교회의 개혁을 시도하였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중세 말의 교회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였다. 루터도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였으나, 죄인이 구원을 받고 죄에 대한 용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확신을 얻게 된 것이다. 이는 중세 교회의 가르침과 대립되는 개념이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에는 '면죄부'가 중심에 있었으나, 곧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차이가 표면화되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루터는 초기부터 고해성사 자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고해성사는 모두 세 단계를 걸쳐 시행된다. 먼저 마음 깊이 후회와 반성을 하고, 그 다음 죄를 고백한다. 이 과정을 걸친 후에 죄에 대한 보상을 치르게 된다. 그러나 교회의 타락과 함께 앞의 두 단계

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마지막 단계 즉 보상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다. 그 결과, 죄에 대한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금전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보편화된 것이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금전이 죄를 용서하는 방편이 된다는 전통의 성경적 모순을 드러내려 한 것이다. 그러므로 루터의 칭의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화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었다는 비판의 소리도 적지 않게 있다.

그러나 루터가 처한 시대적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의 칭의론이 결코 성도의 성화와 사회적 책임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루터는 중세 로마교회의 영적 황포에 대하여 커다란 반감을 지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황과 성직자들의 관심이 성도들에게 그리스

도시 선한 행위를 동반한다는 것이었다. 루터는 성도의 성화를 칭의의 자연스런 결과로 본 것이다. 이는 성화를 칭의의 전제조건으로 삼으려는 로마가톨릭 교리전통과 상반되는 것이었다.

적극적 책임

루터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선한 행위의 열매가 없다면, 그는 '...

받아 '자기 중심'과 '자기 관심'으로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루터의 칭의론은 개인의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영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도록 가르친다. 루터의 칭의론은 적극적인 신앙인을 요구한다.

이다.

그들은 세 가지 기본진리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첫째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칭의가 삼위일체 하나님 사역이라는 확신을 함께 가진다"(공동성명서 15항). 둘째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공동성명서 16항). 셋째로, "칭의의 메시지는 우리를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행위에 대한 신약 성경의 증언의 핵심으로 인도한다"(공동성명서 17항).

공동성명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개혁교회의 전통적 칭의론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칭의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면서도, 인간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본다. 선행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이해하는 동시에 선행의 공로성을 인정한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거의 500년이 되도록 각자의 길을 걸었던 두 교회가 한 자리에 모인 것, 근본적으로 다른 신학적 개념 속에서 합일점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 나아가서 구교와 신교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선언한 것에 대한 세계 교회의 반응은 다양하였다.

책임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다른 아닌 종교 다원주의의 영향이었다. 두 교회는 종교다원주의와 에큐메니칼 운동을 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된 것이다. 종교다원주의와 에큐메니칼 운동은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한다. 그러나 그 중심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빠져있다. 십자가의 복음에 근거한 칭의론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책임지도록 맡기셨다.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교회는 개인 구원과 개 교회 중심을 탈피하여 주어진 본분에 충실하여야 한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선교와 전도에 집중하여왔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사회를 위해 자신과 구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사회에 투자할 때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계산하는 것은 매우 인간적인 생각이 다. 사랑은 대가와 보상 때문에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찾아가면, 섬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것이다.

covenantcho@yahoo.com

종교개혁 500주년 - 무엇이 관심을 기울일까? (12)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루터가 목숨 건 성경적 칭의론, "선한 행위가 인간을 의롭지 못한다" 의롭게 된 성도의 삶은 반드시 선한 행위를 동반한다는 것 명심해야

와 믿음으로 구원과 죄의 용서가 가능한 것임을 천명한다.

루터의 칭의론은 향후 개신교 종교개혁 신학의 구심점을 이루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로마가톨릭 교회는 루터의 칭의론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배신감으로 인하여 받은 상한 감정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신

도 안에서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일에 있지 않고, 긴장감을 만들어내어 도리어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활짝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을 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호화스러우며 비도덕적인 삶을 유지하는 일에 급급

죽은 믿음을 소유하였다고 직언하였다. '이웃 사랑'을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도덕의 핵심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신앙인은 자신의 구원을 신앙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는 편협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루터가 비판적으로 바라본 로마

합의된 칭의론

1999년 10월 31일,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다. 로마가톨릭교회와 루터교회를 대표하는 1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칭의의 교리에 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10월

1999년 로마가톨릭과 루터교회 칭의 공동성명... 선행의 공로성 인정 사랑으로 이웃 찾아가면 섬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게 하소서

학의 잣대로 볼 때 루터의 칭의론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책임 회피?

로마가톨릭교회의 입장에서 루터의 칭의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값싼 것으로 전락시켰다고 보았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책임지고 살 것을 요구하셨지만, 루터의 칭의론은 도덕폐기론자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 루터는 칭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동시에,

해 하는 모습에 일격을 가한 것이다.

그렇다면 루터는 신앙과 행위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였을까? 로마가톨릭이 비판하듯이, '이웃 사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도 가능하다고 가르쳤을까? 아니다. 루터는 믿음과 선한 행위의 연관성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쳤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행위들이 인간을 결코 의롭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버금가는 중요한 가르침도 있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성도의 삶은 반

가톨릭교회의 모순은 이랬다.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선한 행위의 노예로 만들어서, 자발적이 아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선한 행위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웃 사랑의 동기는 사랑이 아니라,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진정성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 다가가지 않는 것은, 외식적인 것이기에 이런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자유'를 '선한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시켰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누리는 성도는, 십자가의 사랑을 본

31일은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제시함으로써 전 세계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일'로 지키는 날이다.

물과 기름, 불과 얼음과 같이 전혀 다른 신학을 발전시켜 온 두 교회의 공동선언, 그것도 두 교회를 갈라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칭의론에 대한 기본교리에 대한 합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개신교회가 놀랄 수밖에 없었다. 두 교회가 칭의론을 전적으로 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무엇이 근거해서 공동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

Worldwide church directory including sections fo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and various regional churches like '뉴욕셋새미교회', '뉴욕목양장교회', etc.

리더십 코멘터리 (45)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꿈이 없인 잠들지 말고, 꿈이 없인 깨어나지 말라

왜 이렇게 Burn Out 되었는가?

얼마 전 한국출신의 세계적인 슈퍼모델 K씨가 약관의 나이에 자살했다는 보도가 나와 사회를 놀라게 만들었다. 참 가까운 친구였었다. 누구나 동경하는 모델업계에서 월드스타가 된 그녀가 왜 자살을 했을까? 그녀의 블로그에서 그녀의 고민을 알 수 있었다. 오랫동안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려온 그녀는 놀랍게도 자신을 '왕따'라고 생각하고 또 이 세상에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다. 화려한 직업 뒤에 숨겨진 쓸쓸한 이면이었다.

현대사회는 자살 병을 앓고 있다. 유력 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사회 유명인의 자살사건이 발생한 후 2개월간 자살자가 평소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한 600명이 그 뒤를 따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회지도층이 걸로 보면 화려한 삶을 살고 매우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세계는 매우 허약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세상의 명예와 부 그리고 지식은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세상에서 얻은 성공과 영광이 인간의 속사함을 강건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지혜를 새삼 깨닫게 된다.

경쟁과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라 폴 투르니에의 'Escape from loneliness(고독으로부터 도피)'라는 책에 보면 현대인들이 고독과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는 경쟁과 비교의식이라고 한다. 남과 비교하고, 경쟁의식이 심할 때 인간은 고독감과 우울증에 빠진다는 말이다. 또한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고독해져 마음 문을 열고 대화할 상대가 없어지는 것이다.

인간은 놀라운 성공과 성취를 거둔 승리 후에 허탈감과 탈진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심리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실패했을 때보다 오히려 성공했을 때

더 많은 고독과 불안과 허탈감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실패했을 때는 위로해주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성공한 후에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만한 친구들이 없다는 것이다. 외적으로는 대단히 위대하고 능력 있는 유명인이지만, 내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와있는 그야말로 'Sinkhole Syndrome' 함몰 웅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모순적이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인생이 싱크홀처럼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야하고

타인과 비교 경쟁하지 말고 기독교인으로 확실한 정체성 갖도록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우리의 내면상태가 건강해야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인간의 내면적 세계가 강건해질 수 있을까?

정체성(Identity)을 분명히 하라

①현대인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 쫓기는 인생, 무엇인가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다.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온 다음에 피곤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왜 예배를 드리고 피곤함을 느끼는가? 가식적인 만남과 대화를 나누다가 일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다. 진실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위로와 안식을 누리기도 단단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확신과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이다.

②현대인은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남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 주변에 자기가 싫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왜 나는 명문대를 나오지 못했

는가? 왜 나는 만족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한가?"라는 말을 하며 항상 자기를 부정하고 내가 아닌 남이 되려고 발버둥 치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들인다. 심지어는 학력, 재력, 권력까지도 이용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③현대인은 단절된 삶을 살아가다: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은 자신의 벽을 허물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의 확신을 갖기 못한 사람은 벽에 갇힌 채 세상과 단절되고 만다.

자신감을 갖고 강력한 인생을 사는 리더가 되라

①과거를 점검하라: 내면적 세계를 강건하게 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과연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정당한 정직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잠시 뒤를 돌아다보라.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적 자아를 갖지 못한 사람은 분주하기만한 허황된 인생을 산 것이다. 지금까지 빨리 왔는데 그것이 역주행이었다면 당신의 인생은 결실이 없는 무익한

것이 될 것이다.

②은혜를 체험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한다. 이 말의 의미는 하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인간이 하늘을 생각하고 전능자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순간 원망과 독이 제거되고 은혜를 체험하여 새 힘을 공급받게 된다.

③미래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하나님에게 플러그인(plug in)된 인생은 앞을 내다볼 수 있으며 미래를 예측하고 자신감 있는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자신감을 갖고 강력한 인생을 사는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올바른 열정의 대상을 향해 나아가라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여러 가지 장비나 기구들을 이용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깊지 않은 물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속은 그렇게 깊지도 않은데 무슨 마음을 품었

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의미이다. 흔히 돈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무엇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당신이 눈만 뜨면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입만 열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열정의 대상이다.

당신은 지금 리더로서 남들보다 편안한 삶을 위한 행동에만 전념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회생활 속에서 이웃을 향한 배려와 위로보다 판단과 질책이 더 많지는 않는가? 당신은 세치의 혀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리더인가? 세치의 혀를 가지고 사람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리더인가? 당신의 리더로서의 열정의 대상, 관심의 화제가 당신과 가족의 성공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지금은 리더로서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고 올바른 열정의 대상을 향해 나가야 할 때이다.

케네디 대통령 리더십의 출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책상 앞에는 항상 다음과 같은 4가지 질문이 적힌 종이 놓여 있었다. 케네디는 인생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여 마침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세계 최

고의 미국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다.

①"당신은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인가?" 당신은 '예' 할 것과 '아니오' 할 것에 대해 정확히 말할 수 있는가? '예'인 것을 과감히 붙잡고 '아니오'인 것은 과감히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인가?

②"당신은 올바른 판단력을 가졌는가?"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이고 어느 것이 그른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고 살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옳고 그른 것과는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적당히 살지는 않았는가?

③"당신은 진정 인격적으로 성숙했는가?" 당신의 생활 속에서 또 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능력 보다는 성품, 말보다는 인격이 앞섰는가?

④"당신은 열정을 가지고 정성과 충성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인가?" 매사를 기분에 따라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인생의 목표에 대해 다짐을 하는 당신이 하루라도 꿈이 없인 잠들지 말고, 하루라도 꿈이 없인 깨어나지 말기를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시립대학교 교수)

관계 가꾸기

우리 집 문 앞에는 화분이 몇 개 있다. 그 중 대부분은 몇 년 전에 제자가 다른 주로 이사 가면서 남기고 간 화분이다. 그 제자가 선인장을 좋아하느니 고루나 한 그루를 제외하고는 다 선인장이다. 화초를 돌볼 여유 없이 사는 나에게는 선인장은 별로 손갈 것이 없어서 키우기가 좋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면 되지만 어떨 때 바빠서 깜빡 잊어버려도 선인장은 잘 자라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모처럼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화분을 살펴보니 한 선인장이 너무 커져 버린 키를 지탱하지 못해서 한 쪽으로 휘어지고 있었다.

그 옆에 있는 선인장도 뿌리 쪽 잎사귀들이 누렇게 변해 있었다. 아무리 선인장이지만 너무 무심했구나 싶어서 분갈이를 해주고 흙을 조금 더 돌아주었다. 잎을 정리하자니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는 잎이 손이 닿으니까 푹푹 부러지는 것이었다. 조심스레 잎을 정리하면서 "잘 안 돌봐주어서 미안해, 그런데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하다보니 그 전날 저녁에 만난 이름도 묻지 않은 부부가 생각났다. 아침에 아내 되는 분이 텍스트 메시지로 부부상담을 해줄 수 있을지 물었다. 나는 상담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없지만 경청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녁시간에 부부를 만나기로 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일지, 나와서 만났던 그 분들에게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오전 내내 생각하면서 이 주 동안 계속 마음에 머물고 있는 찬양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을 반복해서 듣고 있었다. 찬양사역자가 찬양 끝부분에 우리의 삶에 에스겔서의 마른 뼈가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는 멘트를 했다. 처음 듣는 말씀도 아니고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부부에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서 큰 소리로 "아멘"을 했다.

저녁에 그 분들을 만났다. 짧은 인사가 오간 후 서로에 대한 불만과 비난이 경쟁이라도 하듯 이어졌다. 대화의 흐름을 보면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다. 오전에 전문 상담인을 만났는데 헤어지라고 했다고 한다. 기독교 상담인이 아니면 쉽게 할 수 있는 권면이었다. "교회도 나가고 예수님도 아는데 정말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면서 쓰고 쓴 마음으로 헤어져야 할까? 그동안 들은 많은 설교와 여러 종류의 훈련은 이 부부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인생의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오갔다. 일단 감정 표현을 다 한 후여서 조금은 더 이성적인 생각을 할 준비가 된 아내와 차분하게 대화를 시작했다. 서로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다 보면 둘 사이의 점점 더 벌어지지만 이미 너무 벌어진 것 같은 틈을 좁힐 수 있는 유일한 공통분모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남편의 장점만을 볼 수는 없을지, 마지막 선택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믿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없겠는지를 부탁했다. 감사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실망과 미움 뒤켠에 사실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숨겨져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 두 분 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끈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름을 알면 불편할까봐 이름을 물어보지 않은 채 함께 짧은 기도를 하고 헤어져 집으로 왔다.

요즘에는 황혼이혼이니, 졸혼이니 하는 단어도 있지만 부부에게는 결혼 후 십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한다. 이런 저런 모양으로 쌓이는 불만을 이용해서 하나님이지으신 가장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을 파괴하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을 이기려면 한 주일에 한 번 물론겨우 주는 것 같은 최소한의 돌봄이 아닌 사랑이 담긴 규칙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마음은 어떤지, 일상의 일이 지치고 피곤한 것은 아닌지, 영혼의 건강은 또 어떤지 잘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어야 한다.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그동안 서로에게 소홀했던 것을 사과하며 주님을 뿌리로 삼아 건강하게, 행복하게 가정이 잘 살아 남도록 노력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lpyun@apu.edu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4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며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7년 10월 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장영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당신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유석경 저/주장



광야의 소리, 윤희하
성서유니온



나는 아메리카의 한국인입니다
김준자 역/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감사 플러스 긍정 플러스
이명욱 역/아름다운 동행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도서 구입처), 로고스 선교회(회장 박도원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조이서적 213-380-8793 www.joyla.com

복음의 열정으로 “이 땅에 부흥을” 필라교협 주최 복음화대회, 강사 양명환 목사

대필라델피아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영천 목사)가 주최한 초교파 연합집회인 복음화대회가 지난 22일부터 나흘간 열려 “이 땅에 부흥을”이란 주제로 양명환 목사(횡성감리교회)를 강사로 필라한인연합교회(담임 조진모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필라교협이 주최한 복음화대회에서 강사 양명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김영천 회장은 “복음화 대회가 성료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장소를 제공한 한인연합교회와 수고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가 사도행전 3장 1-10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삽니다”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박상욱 장로(풍ock메리장로교회)의 헌금기도, 박은정 자매 특송, 백운영 목사(영생장로교회)의 축도 후 김병일 목사(서기) 광고로 마쳤다.

둘째 날은 최해근 목사(증경회장) 사회로 이정철 목사(제자교회) 기도 후 창세기 28장 10-22절을 본문으로 “복을 받고 사는 성도가 됩시다”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양 목사는 “야곱의 거룩한 욕심, 끈경 가운데서도 제단을 쌓고 아버

지로부터 축복 받은 과정”을 설명했다.

셋째 날은 이대우 목사(증경회장) 사회로 전영현 목사(증경회장) 기도, 카메라타합창단 찬양후 양 목사가 “거룩한 욕심을 가집시다”(왕하2:1-15)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제자 중 엘리사가 택함 받은 열정과 땀에서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열거”하며 말씀을 전했다.

넷째 날은 김영천 목사 사회로 박도성 사관 기도, 필라한인연합교회 찬양대의 찬양후 양 목사가 “교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겔47:1-12)란 제목으로 “설교, 기도, 전도, 예배를 중요시 할 것”을 역설했다.

배대진 전도사 바이올린 독주 후 조진모 목사(필라한인연합교회)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조진모 목사 축도 후 다과회로 친교를 나눴다.

강사 양명환 목사는 전 세계에 82개 교회를 개척했으며, 이번 성회에서 복음 위주의 열정적 설교로 성도들을 깨우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사제공: 필라교협)

기도/칼럼

비록 쓰레기라 할지라도



박헌승 목사
(카나다서부장로교회)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의 청동조각품 ‘황소머리’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귀한 예술품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예술품의 재료는 쓰레기 처리장에 버려진 낡은 자전거입니다. 쓰레기가 위대한 예술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피카소의 눈과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과 손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을 긍휼의 눈으로 보십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길가에 버려진 죽어가는 생명이라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 생애는 위대한 결과의 인생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요셉, 모세, 다윗, 욥, 요나, 마리아, 베드로, 바울 등이 그 좋은 예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쓰레기 같은 버려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은 결코 싸구려 삶을 살지 않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하늘에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성령의 호흡을 해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참된 나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을 받게 됩니다. 주위는 나를 통해 밝아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피카소는 말하기를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쓰레기라고 해서 다 못쓰는 것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쓰레기라도 위대한 예술품으로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나는 쓰레기 인생”이라고 자포자기하며 버려진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과 손에 나를 맡겨보면 귀하게 쓰임 받는 탁월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메일: bible66@gmail.com



미드웨스트대학교 2017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교수와 졸업생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드웨스트대 개교31주년 졸업식 및 기념행사 세인트루이스 본교서... 박사학위 명 등 총 35명 졸업

올해 개교 31주년을 맞은 미드웨스트대학교(Midwest University, 설립자/총장 제임스송 박사)가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세인트루이스 본교에서 학위수여식 및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런 졸업식을 통해서 이현구(리더십), 박사연(리더십) 박사를 비롯한 35명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자가 배출됐으며 특별히 데보라 파이크스 여사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

12일부터 나흘간 집중세미나(특강)가 열렸으며, 16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글로벌여성리더십 포럼(Global Women's Leadership Forum), 오후 3시에는 학위수여식이 진행됐고, 오후 7시에는 개교 31주년 기념 뮤직페스티벌이 열렸다.

만찬 후 오후 7시부터 열린 뮤직페스티벌은 박사과정 재학생과 세인트루이스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 폭스 디어터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브라스 챔버 앙상블(Brass Chamber Ensemble with Percussions), 그리고 지역교회의 콰이어와 미드웨스트 연합 코러스의 참여로 성대하게 진행됐다.

뮤직페스티벌은 음악과 재학생들과 세인트루이스 지역 미국교회들과 오케스트라, 그리고 지역 음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런 페스티벌에선 고전과 낭만,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음악 장르와 시기별 다양함을 들려주었으며, 특히 김대권 주임교수가 16-18세기 이탈리아 가면극의 특징을 담아낸 피아노 솔로 작품 Dancing Puppet으로 시작해 테너 박태석의 한국 가곡과 CCM 찬양 및 오페라 아리아, 리스트의 Sonetto 104번과 라흐마니노프의 Musical Moment 16번을 연주한 피아니스트 김성희에 이어서 세인트루이스 심포니 오케스트라단원의 트럼펫 듀엣이 연주했다.

16일 오전에 진행된 글로벌여성 리더십 포럼은 WEA 유엔 대표로 국제인권 문제와 여성리더십 분야에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고 활약하고 있는 데보라 파이크스(Mrs. Deborah Fikes)와 제임스송 총장이 주강사를 맡았다.

특히 페스티벌이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가 되기 위해 마지막 찬양을 함께 했다.

본교 문의: (636)327-4645, usa@midwest.edu, www.midwest.edu

(기사제공: 미드웨스트대학교)

살롱장로교회 여름 어린이성경학교 에치오피안, 베트남 교회와 함께 진행

살롱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가 주최한 여름 어린이성경학교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열렸다. 어린이들과 교사, 보조교사와 여전도회 회원 등 총 130여명이 참석했다.

특별한 은사가 있는 Hannah Wing 선생을 필두로 살갑나는 캠프아웃(Camp Out) 현장을 재현해 실감나는 교육을 함으로 어린이들이 평생 기억할 수 있는 성경학교가 됐다.

올해는 동 교회건물을 사용하는 에치오피안 엘카봇 이벤펠리칼 처치와 베트남 몬트나드 그레이스 엘리야인스처치 등 세 교회가 연합해 실시했다.

나성균 목사는 “앞으로 살롱장로교회가 추구하는 다민족교회로서 귀한 성공을 거둬 제자리를 걸음하는 한인교회의 새로운 성장과 영혼 구원의 모범을 보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살롱장로교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주관하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남가주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 및 기념포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미주 성시화운동본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포럼 제2회 남가주신학대학교 연합 설교페스티벌 함께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주관하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포럼 및 설교 페스티벌이 남가주에서 열렸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 관계자들은 지난 27일 오전 11시 30분 JJ그랜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포럼과 제2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페스티벌을 갖는다고 밝혔다.

생이며 미국신학교의 한인신학생까지 포함된다.

3부는 평가 및 발표는 텍스트북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기홍 목사(미주성시화 서부지역 회장)는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500주년이 되는 시점에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가운데 성시화 중심으로 모든 교계단체가 연합으로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대회 갖고자 준비하고 있다”며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이 당시에도 있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500주년 되는 이 시점에 무엇이 말씀에서 벗어나는지 점검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본문은 구약과 신약 각 2개 본문이며 종교개혁과 관련된 구절로 참가자가 선택해서 발표하게 된다. 레터 사이즈 4-5페이지 15분 분량이다. 상금은 대상 2000달러, 설교상 1500달러, 주해상 1500달러, 커뮤니케이션상 1000달러, 참가상 200달러.

이 총장은 “개신교 가장 큰 전통이 말씀선포이다.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무질서하게 되기에 신학생들이 말씀의 본질을 돌아가 종교개혁 본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과 설교페스티벌은 신학교를 중심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주제로 말씀부흥운동을 펼친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포럼은 종교개혁과 유산이 남긴 의미를 다각적으로 회고 분석해 21세기 디아스포라 이민교회 현장에 주는 실제적 의미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는데 목적이 있다.

한 목사는 또 “오는 10월 29일 종교개혁주일에는 다민족 기도대회를 열어, 모든 다민족 지도자들과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성경에서 벗어난 부분을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기도회를 갖는다. 이민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민교회 중심으로 한인사회에 빛된 영향력 되는 사역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포럼은 이민교회 성도들 목회자들과 컨택 포인트를 찾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일정은 11월 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종교개혁과 디아스포라 이민교회의 현재와 미래 주제로 열린다. 5개 발제가 준비된다”고 설명했다.

이상명 총장은 “설교페스티벌은 차세대 지도자로서 장차 이민교회와 세계선교현장에서 사역할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연다. 종교개혁자들의 전통과 정신을 기리고 이 시대 이민교회가 경청해야 할 개혁적 설교를 선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발제는 박경수 목사가 ‘종교개혁 500주년 역사적회고-지난 500년간 종교개혁이 남긴 유산 탐색’, 권영건 박사가 ‘종교개혁 500주년과 현대교회의 위기 진단과 해결모색’, 정성욱 박사가 ‘종교개혁 500주년과 디아스포라 이민교회의 미래적 전망’, 그리고 이상명 박사가 ‘종교개혁 500주년과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사회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발제하게 된다.’

설교페스티벌은 11월 4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남가주신학대학교(담임 백정우 목사)에서 열린다.

논찬자로 이승현박사(ITS총장), 고태형 박사(선한목자장로교회 담임), 송인서 박사(미주장신대 역사신학 교수)가 참여하며 포럼은 출판된다.

▲문의: (213)384-5332 (박준호 기자)



레위남성성가단 단원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찬양” 레위남성성가단 창단31주년 정기연주회

레위남성성가단(단장 박철순 집사, 지휘 광명규) 창단 31주년 정기 연주회가 6월 25일 오후 6시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열렸다.

신성진 아나운서(CGNTV USA)의 사회로 민경엽 목사 기도후 시작된 정기연주회는 총 4개의 무대로 열렸으며 ‘사람들은 주가 필요해’, ‘십자가 그늘 아래’, ‘신자 되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하나 되어’ 등 아름다운 화성을 선보였다.

박철순 단장은 인사말에서 “레위남성성가단 단원 한 사람 한사람이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정기연주회를 준비했다”며 “오늘 연주회를 통해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미주동포후원회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평창동계올림픽 미주동포후원회 발대식

평창동계올림픽 미주동포후원회 발대식이 6월 24일 오후 5시 LA 한 국문화원에서 열렸다.

이병만 후원회 대표회장의 답사 및 임원소개로 시작된 2부는 임종훈 사무총장의 경과보고,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의 축사를 최순길 공동회장이 대독했으며 이병도 공동회장이 인사말씀을 전했다.

노승환 부장(LA한국문화원) 사회로 시작된 1부는 이기철 LA총영사, 데이빗 류 LA시의원, 이은 남가주상공인회 회장이 축사했다.

그리고 송정명 월드미선대학교 총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성호를 기원하는 인사를 했으며 차종환 박사가 올림픽 성공기원을 위한 파이팅을 외치며 발대식을 마쳤다.

이어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상황 영상 관람 및 현지 진행사항에 대해 한국관광공사 김태식 LA지사장이 보고했으며 이회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홍보전시관 개관식 및 미주동포후원회 축하영상 소개됐다.

(기사제공: 평창동계올림픽 미주동포후원회)

동부교계 게시판



퀸즈장로교회 2017 여름학교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2017 여름학교가 7월 5일(수)부터 8월 11일(금)까지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 열린다. 참가대상은 킨더가든부터 12학년(SAT 클래스)까지.

▲문의: (718)886-4646

행정 사무 관리 직원모집

뉴욕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참사랑교회(담임 은희곤 목사)에서 행정, 사무 및 관리직원을 모집한다. 자격은 컴퓨터와 영어가 필요하며 파트타임(1주일 3번),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pastor.eun@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516)512-4424

뉴욕시온성교회 여름 부흥성회

뉴욕시온성교회(담임 김성은 목사) 여름 부흥성회가 7월 21일(금)부터 23일(주)까지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담임)를 강사로 열린다. 시간은 금, 토 저녁 8시 주일은 오전 11시30분.

▲문의: (732)947-2028



제 3회 정기총회를 마친 후 함께한 임원들. 왼쪽에서 세 번째가 회장 김종권 목사

조지아해병목사회 김종권 회장 유임 제 3회 정기총회, 부회장 류영호 목사 선출

조지아해병목사회(GMCCA, 회장 김종권 목사) 제 3회 정기총회가 지난 25일 오후 6시 둘루스 지역에 있는 류영호 목사(에틀렌타노 인대학 학장) 자택에서 제 24차 월례모임과 함께 열렸다.

1부 예배는 협동총무 김민수 목사 사회로 김종권 목사가 기도하고, 배창섭 목사가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딤후4:12-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배 목사는 “사도 바울은 지난 날 그 자신의 Anti-Christ 행적으로는 결코 주의 종이 될 수 없음을 알았기에 사도도 부르심을 받은 후, 그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감격을 품고 사역했다”고 말하고 “우리 모두도 영적인 진보는 무한대라는 진리를 깨닫고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당부했듯이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일에 힘쓰자”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식사 후 개최된 제 3회 정기총회에서는 류영호 자문위원이 기도하고, 김종권 회장 사회로 개

회선 후 임원선출로 들어가 △새 회장에 김종권 목사(미주에국목사 연합회 회장)를 회원 만장일치로 유임시키기로 결의하고 △부회장 류영호 목사 △총무 김민수 목사 △서기 어태용 목사를 각각 선출했다.

새 회장에 유임된 김종권 목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다고 했음에도 아쉬움이 많았는데, 전혀 예기치 않게 또 다시 연임하게 됐으므로 앞으로 한 해 동안 회원들을 섬기며 회장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인사했다.

이어 고문 유지화 목사가 회장 김종권 목사에게 공로패를, 직전총무 어태용 목사에게 회장 김종권 목사가 감사패를 수여하는 순서가 있었다.

앞으로 한 해 동안 해병의 정신으로 더욱 단결해 힘찬 사역을 다짐한 조지아해병 목사의 기입 및 문의는 김민수 총무(678-622-2717)에게 하면 된다.

(기사제공: 조지아해병목사회)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 돼야 한다”

뉴저지교협, 2017 호산나복음화대회 성료

뉴저지교협(회장 김종국 목사)이 매년 주최하는 호산나복음화대회가 올해 29회를 맞아 지난 6월 23일부터 사흘간 한소망교회(담임 김귀안 목사)에서 개최됐다.

“교회, 다시 부르심 앞에 서자!”는 주제로 권준 목사(시애틀 형제교회 담임)를 강사로 열린 대회를 시작하며 김종국 목사는 개회선언을 통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아래 시작한 종교개혁 500주년인 만큼 이번 호산나대회 주제도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RE:Church/교회! 다시 부르심 앞에 서자!라는 주제아래 종교개혁 500주년의 꿈을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사 권준 목사는 “교회-다시 부르심 앞에 서자”(행2:42-47), 둘째 날 “사랑으로 하나 되자”(요 21:15-17), 셋째 날 “교회, 끊임 없이 변화하자”(마9:14-17)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첫날 권준 목사는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대회 주제 설교를 했다. 설교 후에는



뉴저지 호산나복음화대회에서 권준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성령의 임재와 교회의 사명을 촉구하는 뜨거운 통성기도를 인도했다.

사회는 3일간 김귀안 목사(한소망교회), 육민호 목사(서기), 윤영호 목사(부회장)가 담당했으며, 3일간 광고는 장동신 목사(총무)가 맡았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선교보고 시간을 통해 뉴저지교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러브 뉴저지 등 교계기관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찬양과 경배는 뉴저지동산교회,

뉴저지온누리교회, 뉴저지침례교회에서 담당했다. 설교에 앞선 찬양은 한소망교회, 필그림교회, 아플라연 합감리교회 등이 담당했다. 설교후 특별찬양은 뉴저지장로성가단, 권

사함찬단, 뉴욕크리스찬코랄 등이 담당했다. 봉헌송은 좋은이웃코러스,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 엘릭 크리스찬밴드 등이 담당했다.

기도는 박근재 목사(목사회 회장), 오병준 목사(뉴저지방주교회), 김태수 목사(뉴저지침례교회)가 담당했다.

통성기도는 호산나전도대회라는 주제를 놓고 성영호 목사(다리놓는교회), 뉴저지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김은범 목사(사랑의글로벌비전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정환 목사(뉴저지순복음교회) 담당했다.

봉헌기도는 원도연 목사(기록서기), 민경수 목사(감사), 송호민 목사(기록회계)가 담당했다. 축도는 김정문 목사(증경회장), 정성만 목사(증경회장), 황의춘 목사(세기총회장) 등이 담당했다.

한편 호산나복음화대회를 마치고 26일 오전에는 권준 목사가 “교회 부흥의 3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저지목사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저지목사회 신임회장에 박근재 목사 제 7회 정기총회, 부회장 김종윤 목사 선출

뉴저지목사회가 지난 21일 오전 11시 시나브로교회에서 제 7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박근재 목사(시나브로교회 담임)를 추대했다.

부회장은 후보로 추천된 김종윤 목사와 권영덕 목사에 대한 경선을 무기명 비밀 투표로 실시해 14표를 얻은 김종윤 목사(예수드림교회 담임)가 선출됐다.

신임 회장 박근재 목사는 “회원 모두가 힘을 합쳐 재미있고 역동감 있는 뉴저지목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목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임원 선출에 앞서 사업 보고, 회계 보고, 산하 단체들의 연중행사 보고와 회칙 개정이 있었다.

총무 육민호 목사는 1)필그림교회 도움으로 목회자 자녀 8명에게 1인당 1천달러씩 총 8천달러 장학금 수여 2)목회자아버지학교 개최 3)유철은 목사 초청 예수만나 성경 세미나 개최 4)뉴저지교협과 연합

해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준비 5)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종교개혁지 탐방 6)미동부 4개주 목사회 체육대회 참가 등을 보고했다.

회무처리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근재 목사의 사회로 기도 권광희 목사, 설교 양준길 목사, 헌금기도 이준규 목사, 광고 육민호 목사, 축도 이병준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양준길 목사는 “서로 사랑하라”(요13:34-35)는 제목의 말씀에서 “사랑은 같이 있어 주는 것이다. 연약하고, 소외되고, 지쳐있는 동역자들 곁에 있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섬기셨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계속 기억하고 분노하며 살아간다. 그럴 때마다 계속 용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연 제8회 어머니 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초감정과 상처” 주제, 임양택 목사 세미나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연 제8회 어머니 기도회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협회(회장 권금주 목사)가 “기도하는 어머니는 행복합니다”란 표어를 내걸고 매일 주최하는 제 8회 어머니 기도회가 지난 21일 오전 10시 30분 기쁨과영광교회(담임 전희수 목사)에서 열렸다.

금번 기도회는 가족사랑상담센터 초대이사장을 지내고 현재 패밀리 리더십 상담스텝인 임양택 목사를 강사로 “초감정과 상처”라는 주제로 가정사역 세미나로 진행됐다.

임양택 목사는 “숨은 감정을 의미하는 초감정은 타인의 감정에 대한 감정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대한 2차, 3차, 4차 감정도 가리킨다. 우리가 아니라 여럿일 수도 있고, 여러 층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알아차리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나의 초감정을 알아차릴 때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부 예배는 권금주 목사 사회로 기도 장만자 목사(뉴저지부회장), 합심기도 나명자 목(어머니기도담당), 제목기도 안경순 목사(총무), 헌금특송 남상보 집사(밀알선교단), 헌금기도 오명희목사(자문위원), 광고 최근선 목사(회계), 축도 전희수 목사(연합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동 연합회는 6월 5일부터 7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중보기도대회를 협력한 바 있다. 중보기도대회는 캐나다 한인어머니중보기도회(회장 서은주 목사), 한국어머니중보기도회(회장 정사라 목사)와 함께 참여했으며 2018년 세계어머니 중보기도회를 한국 제주도에서 진행할 계획 중에 있다.

(기사제공: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협회)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강사: 라흥채 목사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복합문화권과 복음전달 사역방식' 주제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가족수련회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회장 김희창 목사) 가족수련회가 4개 지방회 교역자연합으로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밴주라 하버에 위치한 포인트 리조트에서 진행됐다.

동 교역자회는 엘에이동지방회, 엘에이지방회, 남서부지방회가 소속돼 있는데 이번에는 북가주지방회의 일부 목회자도 초청됐다. 주 강사로는 김태일 목사(인천 계산장로교회)가 초청돼 '복음전달을 위한 주제설교'를 통해 개인과 가정의 변화를 진솔하게 언급하고 전도 강중도 들려줘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줬다. 금번 수련회는 '복합문화권과 복음전달 사역방식'이라는 주제로 진행돼 특강1을 통해 여운영목사(UGN 대표)가 '침단문화 혁명적 패러다임 변화와 사역방향', 김희창 목사(트리니티대학교 총장)가 '문화지수(CQ)와 사역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멀티 티칭을 해 복합문화권 이해와 문화적 패러다임 변화에 적을 하도록 했다. 특강 2에서는 엘에이동지방회장인 안신기 목사가 금번에 그레이스 신대원에서 문화교류학박사(D.Ics) 학위를 받은 논문 제목인 '한인 이

민교회의 다문화적 성경해석'을 발제해 참석한 90여명에게 금번하고 있는 복합문화권에서의 성경적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뤄가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한편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영기 선교사 아들인 폴 리가 인도하며 그 가족됨을 확인하게 했고, 지성소학생 외 11명의 목회자 자녀들에게 이민목회자자녀 장학금 전달행사도 가졌다.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주최 2017 가족수련회에서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한빛성결교회 창립30주년 기념 임직감사예배에서 임직자들과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안수집사-최알렉스, 권사-박남옥, 홍숙영 한빛성결교회 설립30주년 임직감사예배

한빛성결교회(담임 차광일 목사) 설립 30주년 기념 임직감사예배가 6월 25일 오후 4시30분에 열렸다. 본 교회 찬양팀과 차광일 목사로 인도된 예배는 김신웅 장로가 기도했으며 한빛교회 성가대가 찬양했다. 이어 이상복 목사(미주성결교회총회장, 연합선교교회 담임)가 '은혜가 풍성한 한빛교회'(고후8:1-7, 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은경 자매가 봉헌송을 불렀다. 이어 열린 임직식에서 안수집사, 권사를 임직했으며 최경환 목사(미주성결교회 부총회장, 시온성결교회 담임)이 회의를 위한 권면을, 안신기 목사(LA동지방회 회장, 한사랑교회 담임)가 임직자를 위한 권면을, 이흥근 목사(미주성결교회총무)가 축사를 했으며 임직패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임직자 대표 홍숙영 권사가

담사했으며 국제찬양동 선교대학 몸찬양팀이 특별순서가 있었다. 이날 임직감사예배는 박성삼 목사(증경총회장, 성산교회 원로) 축도로 마쳤다. 다음은 임직자 명단이다. △안수집사: 최알렉스 △권사: 박남옥, 홍숙영. <박준호 기자>



GMI YOUTH ORCHESTRA 콘서트

GMI 유스 오케스트라 콘서트

지난 6월 17일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GMI 유스 오케스트라가 비전센터 분당에서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을 위한 서머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연주회는 클래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됐다. 콘서트는 유니트리 사회자의 곡설명으로 시작됐으며 GMI 유스 오케스트라는 베토벤 심포니 1번을 연주하고 베토벤 피아노 콘체르토 5번을 피아니스트 박명숙씨와 함께 협연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콘서트가 끝난 후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으며 한 관객은 "콘서트 전 뛰어놀던 아이들이 과연 어떤 소리를 내는지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너무 훌륭했다"고 전했다. 지휘는 오렌지카운티 심포니 부지휘자이며 플러튼칼리지에서 바이올린을 지도하는 정승재 교수가 담당했다. GMI 유스 오케스트라 오디션은 gmiorchestra@gmail.com 또는 (714)318-2085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은혜한인교회>

서부교계 게시판



나성영락교회 한여름밤 말씀성회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 한여름밤 말씀성회가 '새 사람을 일으켜라'라는 주제로 7월14일(금)부터 16일(주)까지 개최된다. 강사는 정성진 목사(거룩한빛 광성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14일(금) 오후 7시, 15일(토) 오전 6시, 오후 6시, 16일(주일) 1-5부 예배. ▲문의: (323)227-1400

어린이전도협회 2017 캠프
어린이전도협회에서 주관하는 Children's New Life Bible Camp가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Back to the BIBLE"이라는 주제로 Rancho Ybarra 크리스천 캠프장에서 실시된다. 대상은 3-7학년. 이번 캠프는 예수님을 모르는 어린이들에게는 복음을 통한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그리고 구원 받은 어린이들에게는 말씀을 근거한 확실한 믿음과 성경을 나침반으로 삼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경 중심의 알찬 내용과 활동으로 캠프가 진행된다. 어린이 새생활 성경캠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cefkoc.com에서 볼 수 있다. ▲문의: (213)382-1544

미주크리스천문인협회 2017 문학상 발표
미주크리스천 문인협회(회장 정지윤)는 2017년 제 31회 크리스천 문학상을 발표하고 7월 29일(토) 오전 10시(장소 추후발표) 시상식을 갖는다. 제 31회 당선자는 △시-이용연 '국경지대' △수필-이경남 '콩순이와 팔순이'. 소설부분은 당선자가 없다. ▲문의: (213)249-0771

LA사랑의교회 이민커피세미나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는 이민커피세미나를 7월 9일(주) 오후 1시부터 3시30분까지 '이민커피-성경만 알아도 행복해진다'라는 주제로 본 교회 초등부실(808호)에서 갖는다. 강사는 이백용 송지혜 교수부이며 차일드케어가 제공된다. ▲문의: (213)386-2233

동양선교교회 김지훈 담임목사 취임식
동양선교교회 김지훈 담임목사 취임식이 7월 16일(주) 오후 4시 본 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문의: (323)466-1234

또감사선교교회 친구초청 간증집회
또감사선교교회(담임 최경욱 목사) 친구초청 간증집회가 7월 14일(금) 저녁 7시30분에 개최된다. 집회 강사는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 ▲문의: (323)225-9191

'한여름밤의 예배축제' 4주간 진행 원하트미니스트리, 매주 예배인도자 따로 세워

원하트미니스트리(대표 피터박 목사)가 주최하는 한여름밤의 예배축제가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GBC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열린다. 원하트미니스트리는 2년여 전부터 원하트미니스트리 내에서 인도자와 밴드를 세워 장소를 바꿔 매주 화요찬양모임을 진행해왔다. 한 달에 한번은 게스트 찬양사역자를 초대해 더욱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지만 4주에 걸친 예배 인도자들을 초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월 25일은 이실라 찬양사역자, 8월 1일은 이병하 예배사역자, 8월 8일은 허지애 예배사역자, 8월 15일은 강명식 찬양사역자가 각각 인도하게 된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원하트 워십밴드가 함께한다. 피터박 목사는 '한여름밤의 예배축제'의 테마 말씀인 역대하 7장 14

절을 통해 영적으로 고갈된 예배를 섬기는 자들과 예배자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초심으로 돌아오며, 예배의 열정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기사제공: 원하트미니스트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미나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복음의 인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있다. 길은 999마일을 건너고 골짜기에 들어선 후에 있다. 이 길은 구원계획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라는 구원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구원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구원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구원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저자_라홍채 목사

출판사: 콰란출판사

· 출판출판사 : 02)745-1007
· 한국 : 하나님의 구원계획센터 김중문 목사 : 010-3073-7974
· LA : 기독교서적센터 : 1-323-737-7699
· NY : 하나님의 구원계획센터 라홍채 목사 : 1-917-588-2934, 1-917-968-1024



한미연합회 전국 대학생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한인 정체성 학습 통해 리더십 기른다 한미연합회 전국대학생리더십 컨퍼런스

한미연합회(사무국장 방준영)가 주최한 대학생 리더십 컨퍼런스(NCLC)가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University of Redlands에서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하와이, 워싱턴 DC, 뉴욕, 달라스 등 전국에서 약 2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초청 강연과 한인

정체성 학습을 통해 리더십 역량을 기르는 기회가 됐다. 올해로 37회 째 맞이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데이비드 류 LA시의 원, 한미연합회 초창기 설립자 던컨 리와 키드 킴, 수잔 조 리버사 의 드카운티 고등법원 판사, 폴 송 의 사범 건강정책 활동가, 마크 김 LA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 빅토리아

김 LA타임스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초청 강사로 참여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조언을 듣고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자질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또래 대학생들과 동거 동락하면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공통된 정서를 나눴다. 방준영 사무국장은 "전미 대학생 리더십 컨퍼런스는 한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컨퍼런스로 이번에 학생들이 자신의 열정과 잠재력뿐 아니라 단점을 나누면서 마음을 열었다. 이 학생들은 우리 커뮤니티의 리더로 성장할 것이다. 한미연합회가 이 학생들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과 그 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매년 여름 열리는 한미연합회 전미 대학생 리더십 컨퍼런스(NCLC)는 젊은 코리안 아메리칸 학생들이 관심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미래 직업에서 도움이 될 핵심 리더십을 배울 뿐만 아니라 명석하고 패기 있는 학생들을 사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선교의 창 (81)

서서평 (Elisabeth Johanna Shepping) 선교사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지난 4월 26일 한국에서 개봉되었다. 이 영화는 기독교방송 CGN TV에서 제작한 첫 번째 영화이다. 이 영화 주인공은 1912년 32세의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 찾아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며 헌신한 파란 눈의 여인이다. 그녀는 가난하고 억압받던 조선 땅에 '작은 예수'라 불리며 살아가던 서서평 선교사이다. 그녀는 폐병에 몸이 으스러져도 자신의 건강보다는 굶주리는 조선인들을 걱정했다.

오늘날 기독교회는 큰 건물과 안락함 그리고 화려함으로 치장해가고 있다. 개중에는 유산 놓고 다루는 부잣집 자식들처럼 분점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한다. 한마디로 믿음의 실

독교로 개종을 했다. 그녀는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간호사를 필요로 한다'는 선교부의 포사이스(Forsythe) 선교사의 소식에 접한 후 한국 선교를 자망하였다. 그리고 1912년, 미국 남장로교 해외선교부를 통해 간호선교사로 조선에 파송을 받았다.

2. 선교사 생활

그녀는 1912년 2월 20일 한국으로 파송되어 32세인 1912년부터 1934년 54세로 소천하기까지 22년 동안 사역했다.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고, 옥양목 저고리와 검정 통치마를 입었으며,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된장국을

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열 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넉' '작은넉'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하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 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1921년 내쉬빌 선교부에 보낸 편지).

4. 공헌

간호선교사의 자격으로 1912년 조선에 들어온 서서평 선교사는 이후 광주 제중원을 비롯해 병원에서 간호사

됐다. 장례에 자신의 세운 이일학교의 학생이 운구 행렬을 이루고 그 뒤로 수많은 여성이 소복을 입고 뒤따랐다.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서서평이 죽자 천 여명이 장례 행렬을 따르며 '어머니'라 부르며 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식은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고, 참석한 1천여 명의 사람들이 '어머니'라고 목 놓아 우는 통곡소리는 마치 비행기소리와 같았다고 한다.

맺음 말

서서평 선교사는 아버지가 없는 미혼모의 자식이요, 어머니부터 버림받

선교사역은 특수성, 전문 선교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선교는 "무엇을 이루느냐 보다 어떻게 사느냐" 이다.
선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을 이웃에게 주는 것이다.

제가 미약하다. 믿음은 논리가 아니다. 삶이며 생명이 그 자체이다. 따라서 현대 교회와 선교사들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옛 선교사들의 헌신 정신을 배우고 오늘의 삶에 구현하는 것이다.

1. 출생과 성장배경

서서평 (徐舒平, 1880.9.26. - 1934.6.26)은 독일 출신의 미국 선교사이다. 자신의 급한 성격을 다스리기 위해 우리나라 이름을 지을 때 '천천히'라는 의미의 '서(徐)와 평평할 평(平)을 성과 이름에 넣은 것으로 그의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슈핑(Elisabeth Johanna Schepping)이며 1880년 9월 26일 독일 비스바덴(Wiesbaden)에서 태어났다.

서서평은 아버지가 효적에 없는 원치 않는 아이로 태어났다. 더구나 그녀가 3세일 때 어머니 안나 슈핑(Anna Schepping)은 어린 아기를 조부모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이민 가버렸다. 그녀는 9세에 할머니를 잃은 후 주교 직인 쪽지 한 장을 들고 엄마 찾아 미국으로 갔다. 가톨릭미션스쿨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성마가 병원 간호전문학교를 졸업했다.

뉴욕시립병원 실습 중 동료 간호사를 따라 장로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기

좋아했다. 온전한 조선인이 되고자 했고, 평생 독신으로 살며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일제점령기에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던 광주의 궁핍한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와 추자도 등에서 간호선교사로 활동하였다. 미혼모, 고아, 한센인, 노숙인 등 가난하고 병약한 많은 사람을 보살폈다. 가진 것을 모두 가난한 이들에게 내어주고 정작 자신은 영양실조로 삶을 마감했다. 당시 선교사는 생활비로 3원을 받았다. 그 중에서 슈핑이 자신을 위해 쓴 돈이 겨우 10전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모두 불우한 조선인을 위해 사용했다.

그녀는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시체를 해부해 연구 자료로 삼으라는 유언을 남겼다. 서서평은 조선인처럼 산 것이 아니라 완전한 조선인으로 생활했다.

3. 서서평사가 바라 본 조선

그녀의 눈에 비친 조선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 번 순회 진료와 전도 여행을 나하면 한 달 이상 말을 타고 270km 이상 거리를 돌았다. 진흙탕에 말이 쓰러지면 머리에 이고 백리길을 걸었다. 그녀가 썼던 편지 한 토막은 당시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여

로 일하며 간호원 훈련을 비롯해 간호교서 저술, 조선간호부회(현 대한간호협회) 창립, 10년간 회장으로서 국제간호협회에 가입을 위해 노력했다. 또 배우지 못한 여성들을 모아 설립한 이일학교(현 한일장신대), 부인조력회(현 여전도회연합회) 조직 등 여성계몽과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했다.

특히 한국 사람들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고아와 거지, 한센병자들을 거두어 교육시켰다.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서서평은 수양딸 13명과 나환자의 아들 1명 등 14명의 한국 아이를 입양해 기른 '조선의 어머니'이기도 했다.

또한 서서평은 선교사이기도 했기에 조선인들에게 성경의 출애굽기를 가르치며 해방의 꿈을 가지도록 도왔다. 그의 삶은 참으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지 입증했다.

5. 죽음

1934년 6월 서서평 선교사는 광주에서 만성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숨졌다. 그녀가 남긴 건 담요 반 장, 동전 7전, 강냉이가루 2홉뿐이었다. 한 장 남았던 담요는 이미 반으로 찢어 다리 밑 거지들과 나누었다. 신신도 유언에 따라 의학연구용으로 기증

은 존재였다. 그러나 이 유년시절의 아픔을 십자가 신앙으로 승화시키고 자신의 삶을 선교사의 삶으로 전환시켰다. 그녀의 인생 좌우명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Not Success But Service)이었다. 진정한 예수의 정신을 삶으로 실천한 자였다. 이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는 서서평을 전 세계에 파견된 수많은 사역자 가운데 유일하게 '가장 위대한 선교사 7인'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녀는 종교를 뛰어넘는 사랑과 헌신으로 가장 낮은 자들을 섬기며 진정한 예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었다. 그녀의 삶은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이란 종교와 인종의 벽을 넘어서 이웃인 인류를 섬기는 보편주의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 맘몬이즘시대 교회와 선교 현장이 너무 세속의 유희를 좇는 경향이 짙다. 문화와 환경적으로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시대를 한 알의 밀알로서 헌신한 서서평 선교사의 얘기가 하나의 청량제가 되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신선한 도전이 되었으면 싶다.

jsong007@hanmail.net

선교 펴기

필리핀 민다나오섬

1. 계엄령 소식

지난 5월 23일 필리핀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반군과의 교전이 벌어진 민다나오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명분은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반군세력을 처벌하기 위해서입니다.

민다나오 섬은 남한 크기의 면적으로, 2천2백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 약 20만 명의 마라위 시에 전기가 끊겼고, 일부 건물에는 IS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검은 깃발이 걸렸습니다. 마우테 이슬람 반군들은 주요 도로를 점령하고 학교, 성당, 감옥 등을 불태웠습니다. 마라위 시에는 100명 이상의 마우테 무장대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지금은 정부 군인들이 장악을 하여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제가 민다나오 섬에 계엄령 소식을 들었을 당시 저는 미국 방문 일정 중에 있어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민다나오 섬에 계엄령 소식이 뉴스로 알려지면 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며 저희 가족의 안전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희 지역은 잠보앙가 도시로 4년 전에 이미 내전의 경험이 두 달 동안 있어 시민들이 조심하면서도 계엄령 상황을 주의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조용하였습니다. 잠보앙가 도시에서 마라위 도시까지는 버스로 13시간 정도의 먼 거리라 마라위 별다른 피해는 없었고 검문검색이 강화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계엄령은 1972년, 2009년 그리고 이번 2017년까지 모두 3번째입니다. 지금은 한 나라가 풀 풀 풀 풀 살아도 힘든 국제 경쟁 시대에 필리핀의 남부 민다나오 섬에는 여러 이슬람 반군 세력들의 활동이 심하다 보니 조용할 날이 없고, 경제가 갈수록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14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오후예배: 오후 7: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206)579-7576, Fax: (2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02)749-9929, 267-471-7777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경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벤넬교회  담임목사: 백성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성령):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회: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오 예 배: 오후 8:00 주일 4부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전 10:00(월-금) 토요일예배: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cseattle.org	안다루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	알라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8:00(월-토) Tel: (501)920-9049, 사해, (501)94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u.org	앵커리지벨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사해,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letranz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헌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2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성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4부예배: 오전 11시 수 오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cc.org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보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원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o.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브라질 한국인 선교역사 (1)



강성철 선교사

들어가면서

브라질에 정착한 한국인 선교활동은 1928년 장승호 성도로부터 출발하여 1956년 반공포로로 중립국 브라질을 선택한 사역자들이 이어 1964년 전후로 이민협정 시기에 교단 또는 선교단체로부터 브라질에 파송 받은 선교사가 바톤을 받았다. 그 후 1962년 12월 브라질 농업이민자들이 한국을 출발 인도양을 돌아 브라질에 정착하면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1964년 4월 쌍파울로 근교에 위치한 서울농장 김중혁 성도 가정에서 약 20여명의 성도가 예배를 시작한 연합교회 설립 후 많은 교포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이 교회와 함께 선교하였다. 그 다음 1982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에서 브라질 선교사로 파송 받은 강성철 선교사가 온 뒤 많은 선교

브라질 한국인 선교역사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1928년 9월20일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일본국 조선인 신분의 여권을 가지고 브라질에 입국한 장승호(일명 미다) 평신도선교사로 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장승호는 1928년 9월 20일 브라질에 도착하여 1929-1930년 미나스제라이스 주에 있는 그랜버리 감리교 신학교와 쌍파울로 조아우 마누엘 폰세이성에서 성경학교에서 포어를 공부하는 동안 니시스미 선교사의 재정협력자로 섬기다가 미다 유리씨와 결혼하여 미다가의 데릴사위로 입적했다.)

당시 17세였던 장승호 씨는 브라질로 파송된 자유감리교 다니엘 마사요시 니시스미의 선교사역을 돕기 위해 일본인 사업가 요시쿠사 와다(Yoshikusu Wada, 오사카에 있는 키시노사또Kishinosato 자유

1928년 장승호 성도→1956년 반공포로→1964년 교단파송→1962년 농업이민 1.5세가 60대...목사, 선교사 200여명, 브라질에만 80명이 목회와 선교 사역

사들이 각 교단 및 파송단체를 통하여 파송선교사로 브라질에 정착하여 선교를 하고 있다.

지난 3월 6-9일 Valinhos Fonte Santa Ter-eza Hotel에서 "일어나 함께 가지"란 주제로 열린 KWMF 여성선교사대회 주최 측에서 "브라질 한국인 선교역사"에 대하여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브라질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브라질 한국인 선교역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기쁘게 생각하면서 3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모아놓은 자료들을 정돈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그 지역 선교사역을 소개하고 서로 공유적 속성을 나누고 연구하고 발전시켜 한국인 선교학을 세우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각 지역에 숨은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지도자들에게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고, 선교현장 사역 속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함께 풀고 상황과 역사를 정립하고 지방학을 연구하고 한국인 선교학을 바로 세우는 일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브라질 및 남미 한국이민의 역사가 50년이 넘어가면서 부모와 함께 이민 온 1.5세 청년들이 60세를 넘어가고 있다. 이들 가운데 목사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목회와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200여명이 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으며 브라질만 해도 80여명에 이르고 있다.

1. 브라질 한국인 선교역사

1)일본국 조선인으로 브라질에 온 장승호 평신도선교사

브라질은 한국인 선교역사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감리교 집사)와 함께 선교사 니시스마를 따라 브라질에 입국했다.

장승호는 소년시절 조선인으로 일본에 살면서 가난과 학대와 차별 속에 참으로 힘든 생활을 하였지만 당시 출석한 일본자유감리교회가 차별하지 않고 따뜻한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그래서 자기를 영접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해준 일본인 교회가 너무 감사해서 브라질로 파송 받은 니시스마 선교사를 돕기 위해 다니엘 마사요시 니시스마 선교사와 함께 브라질에 온 것이다.

그는 브라질에서 일본인 아내를 얻고 데릴사위로 들어가 미다란 이름으로 불리여지게 된 것이다. 장승호 평신도선교사는 농장 일을 하면서 니시스마 선교사가 포어 교육을 받으며 선교사역을 할 수 있도록 농장 일을 하며 물질로 도왔다. 그리고 1956년경 50여명의 반공포로들이 중립국을 택해 인도를 거쳐 브라질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Rio de Janeiro(리오 데 자네이로)에 도착해 이들을 환영하였다.

그 후 반공포로 모두가 독신자들이였기에 이들의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이들이 브라질에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멘토의 역할을 주었다. 그리고 그 후 1962년부터 정식 이민으로 온 한국인들의 집 보증을 해주었으며 정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포들에게 배고프지 않도록 쌀가마니를 들고 원하는 가정마다 필요를 채워주었다.

그는 "작은 예수"로 불리울 만큼 브라질 한인사회 뿐 아니라 브라질 현지인들과 브라질에 살고 있는 일본사회까지 그의 선행소식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비록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모든 이들을 품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섬겼다.

kangsungchuel@gmail.com



(13면에서 계속)

민다나오 섬에 이슬람 반군이 모두 소탕되어 경제가 안정되고 사람들이 웃으며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2. 미국 방문



저는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4월 29일부터 5월 31까지 미국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아뵈었고, 여러 도시를 방문하여 함께 교제하며 선교지 소식을 나누었고 기회가 될 때마다 교회에서 선교 집회를 하였습니다.

저희 잠보양가 지역은 한국 외교부에서 한국인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였기에 해제되기 전까지는 한국 사람들의 방문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기회를 만들어 미국에 가서 기도의 동역자를 만났는데, 진학송 간사님은 30년 만에 만났고, 대부분 10년 전부터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었습니다.

외진 선교지에서 22년 동안 숨을 죽여 가며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선교지 상황이 어렵고, 선교비도 갈수록 줄어들기에 여러 분들을 만나 선교지의 상황과 기도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미국 선교 집회를 통하여 많은 분들에게 귀한 섬김과 위로를 받았습니.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번에 새로 만난 몇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과도 계속해서 선교지의 기도 제목을 나누길 원합니다.

3. 컴퓨터 8대 구입

2017년 새 학기부터는 컴퓨터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새희망 학교가 시작되던 7년이 되었는데 그



동안 컴퓨터 수업은 책으로만 하여 학생들이 우리도 컴퓨터를 만져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 몇몇 분들이 특별헌금을 해주셔서 그 재정의 일부로 컴퓨터 8대를 구입하였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컴퓨터 교실을 보면서 뿌듯해 하였습니다.

필리핀에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사립학교는 컴퓨터 앞에서 수업을 실제로 하고, 공립학교는 책으로만 공부를 합니다. 전에는 학교에 컴퓨터 3대만 있었는데 그 컴퓨터는 8명의 선생님이 사용을 하여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사용할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학생들이 컴퓨터를 만지며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저도 기쁘고 학생들도 기뻐하였습니다. 다행히 올해 4월까지 학교 담장 공사도 다 마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학교 담장이 확실하면 도둑이 학교 안에 들어와 컴퓨터를 가지고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컴퓨터 교실 창문 안쪽으로는 튼튼한 철창으로 창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4. 현타이 대학 알아봄

7월 1일부터 24일까지 현타이와 함께 한국에 방문합니다. 현타이와 6개 대학을 찾아가 입학 지원 원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현타이는 선교지 잠보양가 도시에서 태어났고, 외진 잠보양가 지역은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고, 2년 전부터는 한국인 여행 금지 구역이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태어났어도 필리핀은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마닐라의 UST 대학에서 약학과 2학년반을 마쳤습니다. 필리핀에서 의사가 되고 싶어 해도 필리핀은 외국인에게 어떤 자격증이나 면허증도 주지 않기에 한국의 대학을 알아보려 합니다. 선교사들 중에 재정의 역력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을 선진국의 대학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 부부처럼 외지고 위험한 곳에서 사역을 하다보면 찾아오



는 단기선교 팀이 거의 없고, 후원이 어렵지만 이제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사역해오고 왔습니다.

현타이는 외국에서 12년을 공부하였고 각 나라마다 대사관에서 주관하는 한국어 능력시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현타이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모처럼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한국의 대학에서 의예과 학생들이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교는 불과 몇 개 되지 않고 경쟁이 치열하여 쉽지 않았지만 도전을 해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선교지에서 늘 안전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2. 새희망 학교를 운영할 때 필요한 재정이 늘 공급되도록
3. 예배에 무슬림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예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4. 필리핀에서 12년을 공부한 현타이가 한국 대학교에 특별전형으로 의대를 알아보려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하되도록

오정윤, 공윤자 선교사 드림
ohgongtak@hanmail.ne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h4>나침반교회</h4> <p>담임목사 : 민정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말-금): 오전 5:30 통영: 오전 6:30 EM, 대명: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62)691-0691, (562)691-0698 1200 W. Lamberl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p>	<h4>남가주주둔교회</h4> <p>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영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말-금)</p> <p>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scsa</p>	<h4>남가주사랑교회</h4> <p>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침례인: 오전 11:20 영아원 (말-수, 목, 금, 토, 일): 오전 10:00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4>대흥장로교회</h4> <p>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말-토) 금 요 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pc.org</p>	<h4>디아스포라선교회</h4>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학교: 오후 4:00</p> <p>Tel: (213)559-7728 (전환: 박스 경음), Tel: (213)210-6890 1213 Gabriel Marquez St., #8 L.A., CA 90033</p>	<h4>미주양곡교회</h4> <p>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영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www.youngnag.com</p>	<h4>미주평안교회</h4> <p>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침례인/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말-토): 오전 6:00</p> <p>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h4>빛과 소금의 교회</h4> <p>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말-금) 오전 6:00(토)</p> <p>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h4>베델한인교회</h4> <p>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회: 오전 9:15, 11:30 일미예배: 오후 1:30(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h4>복음장로교회</h4> <p>담임목사 : 김성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원: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4>세계소망교회</h4> <p>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토)</p> <p>Tel: (213)745-9191(CH),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4>요셉선교회</h4> <p>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저녁 7:30 금요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p>	<h4>얼빈인침례교회</h4> <p>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금) 오전 6:00(토) 수요영양회: 오후 7:30</p> <p>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h4>월서크리스천교회</h4> <p>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 새벽기도회: 오전 5:40(말-토) 오전 6:00(토) 토요영양회: 오후 6:00</p> <p>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1 L.A., CA 90010</p>
<h4>은혜한인교회</h4> <p>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금), 6:00(토) 은혜성경기도회: 365일 2시간</p> <p>www.graceml.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4>주님승천교회</h4> <p>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말-토)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새벽 기도: 오전 5:30(말-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iunimchurch.com</p>	<h4>주님의영광교회</h4> <p>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말-금)</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scic.org</p>	<h4>좋은마을교회</h4> <p>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말-금) 오전 6:00(토)</p> <p>www.sc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h4>코너스톤 교회</h4> <p>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수요 예배: 오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말-토) 청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p>www.cornestonestv.com / e-mail: pastor@lacome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4>토렌스주교회</h4> <p>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말-토) 청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p>www.torrancec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4>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96-4400 Fax: (718)89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36)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한 비평적 사회학 이야기 (20) (Criti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사카이대학교신학대학원 석사)



지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깨어지고 불의하고 불건전한 부분들 중에서 “물질 만능주의(Mammonism)”와 “부정부패(Corruption)”, “인종차별(Racism/Racial Discrimination)”, “문화간 차별(Cultural discrimination)”, 그리고 “남녀차별 혹은 성차별(Gender discrimination/Sexism)”, 그리고 “동성애자 차별(Discrimination by sexual orientation)”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인 기독교 교육이 비평적으로 관여해야 할 그 마지막 이슈로서 “학교교육(공교육)의 실패 (Failure in Public Education)”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미국 공교육의 실패를 “기본적 학업력 성취의 실패”와 “개혁을 담보할 대안적 동력 제시 실패”로 이해할 수 있다

적 도덕성, 초월적 진리 등을 회복해야 한다는 논리로 실용주의/진보주의 교육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재구성주의자들은 실용주의/진보주의 교육의 패착(사회적 불의하고 깨어진 부분들을 개혁시킬 거시적, 대안적 동력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그들이 현재에 안주하고자 했으며, 사회 개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것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세운 대안 제시의 논리는 교육 및 학교를 통해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교육과 학교가 중립적일 수 없으며, 교육과 학교가 나서서 학생들을 변혁의 일꾼들로 키워내야 하며, 그렇게 이 사회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구성주의자 교육학자인 콜롬비아 대학의 조지 카운트 교수(George Counts from Teacher's Col-

다. 뿐만 아니라 실용주의/진보주의 교육이 실패했던, 불의하고 깨어진 이 사회를 개혁하는 대안적인 동력을 제시하는 일도 결과적으로는 동일하게 실패하였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학교와 교육계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교사와 학생들도 사회개혁에 대한 올바른 사고와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재구성주의자들의 원론적인 의도라고 한다면, 실상 자체가 옳지 않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대안적 동력이 될 수 있는 기본 취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부정적인 사회의 개혁을 견인할 수 있는 교육적 근본 내용이 부재하였고, 사회 변혁의 근거와 논리를 제공하여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영향 받기 쉬운, 아직 스스로의 판단 근거를 생산하는 데 미숙하고 훈련이 덜 된 학생들에게 사회변혁

존 듀이 이론 실패 후 등장한 재구성주의 교육도 학업력 성취에 실패 교육 및 학교 통해 사회개혁 추진... 기초적 내용과 기술교육에 등한시

면, 그 실패를 견인한 것은 존 듀이(John Dewey)의 실용주의(Pragmatism)/진보주의(Progressivism) 교육이 미국 교육계를 풍미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미국 사회에서 편안하게 회자되면서 존 듀이의 실용주의/진보주의 교육은 1950년대에 이르러서 그 영향력이 쇠퇴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교육적 움직임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러한 움직임들 중 하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용주의/진보주의 교육이 쇠퇴해 가면서 그것이 목표로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사회의 불의하고 깨어진 부분들을 개혁시킬 거시적 대안적 동력을 제시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등장한 교육 사조가 있었습니다. 이는 재구성주의(Reconstructionism) 교육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재구성주의 교육은 정확히 실용주의/진보주의 교육의 실패(특히 실용주의/진보주의 교육이 부정적인 사회를 개혁하는 동력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태동되었으며, 이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구성주의자들이 실용주의/진보주의 교육이 기독교적 가치, 전통적 도덕성, 초월적 진리를 비난하고 적대시하여 배제했기에 개혁적, 대안적 동력 제시에 실패했으며, 이에 교육에 있어서 기독교적 가치, 전통

lege of Columbia University)는 교육자들에게 평등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일구어 가는 과업에 학생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도록, 특히 이를 교육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할 것을 추구한 바 있습니다. 재구성주의자들은 교사가 먼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확신을 가진 활동가가 되어야 한다는 바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설득하고 포섭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재구성주의자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 사회 변혁을 일구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회를 재구성하고자 학교를 이용하고자 했으며(reconstructing our society through education), 교육을 재구성하여 사회를 변혁하고자(reconstructing our education for social reform)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구성주의자들의 교육적 노력과 시도들 역시 실용주의/진보주의 교육의 실패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학교의 커리큘럼에서도 현실 안주적인, 안정 추구적인 내용은 모두 배제하고 정의의 사회 구현을 위한 적극적 태도 및 자세를 세우려는 것에만 집중하여 학생들에게 주입적으로 교육하는데 몰두하였으며, 학생들이 그들의 나이에 배워야 할 기초적 내용들과 기술들을 교육하는 일은 등한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용주의/진보주의 교육의 실패했던, 학업력 성취의 문제를 동일하게 드러냈습니

을 위한 헌신을 주장하면서도 왜 그라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자신들의 주장만을 주입하였습니다. 이렇게 실용주의/진보주의 교육의 실패를 호기롭게 비판하며 그 대안이 되고자 했던 재구성주의자들은, 결국 그 대안이 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학업력 증진도, 사회개혁도 일구어내지 못한 채 쇠퇴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용주의/진보주의 교육과 재구성주의 교육 이후에도, 기초적 학업력을 증진시키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거시적 동력이 되는 교육을 일구고자 하는 고민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했고, 다른 교육적 대안들이 제시되거나 혹은 기존의 교육 모델들이 대안으로 재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존주의(Existentialism) 교육, 행동주의(Behaviorism) 교육, 전통주의(Traditionalism) 교육, 그리고 기독교 전통주의(Christian Traditionalism) 교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위와 같은 교육적 모습들 중 “사회적 불의하고 깨어진 부분들을 변화시킬 거시적 대안적 동력”이 될 수 있는 교육의 모습은 무엇일지 살펴보고, 우리 한인 기독교교육이 이에 대해 어떻게 관여해야 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약속의 자녀(롬9:6-11)찬404장

바울은 구원의 독특성을 설명합니다. 첫째, 그것은 약속의 자녀를 통해 일어난 구원입니다(6-10). 아브라함 가족 중 이스마엘과 구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구원을 보여줍니다. 여기 “내 씨”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험으로 설명하는 사도는 창3:15의 “여인의 후손(씨)”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그것은 택하심으로 된 구원입니다(11).

또한 그는 이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택함으로 된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행덕의 원리를 거절합니다.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도 아무 것도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셋째, 부르는 분이 이주신 것입니다(10). 시작의 주께서 성취의 주님이십니다. 그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화 오직 은혜의 구원(롬9:12-15)찬183장

사도의 구원은 그 출처가 절대 은혜임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첫째, 리브가에게 주신 계시가 증거합니다(12). 첫째가 둘째를 섬기는 결과는 그들의 기질과 능력과는 무관함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의 노력 이전,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주인이 선택하심을 아무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둘째, 주님이 먼저 야곱을 사랑하셨음을 증거합니다(13-14). 또한 그 구원은 야곱이

먼저 사랑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심으로 하셨기에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구원의 시작을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에 두게 하셨습니다(요일4:19). 셋째,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구원임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15). 앞선 은혜의 증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리됩니다. 불안으로 방황하는 시대에 이 든든한 은혜의 구원 위에 섭니다.

수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지혜(롬9:16-18)찬495장

사도가 본 복음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째, 우리의 행위나 노력을 뛰어넘습니다(16). 우리의 소원을 이용하시더라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심으로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 두지 않게 해 겸손에 거해 항상 참 은혜에 머물게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나아가 자신의 비참함에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뿌리를 두어 하나님과 연합한 구원을 이루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16). 하나님의 사

람이 우리 구원의 근원입니다. 셋째, 주님이 친히 그의 목적을 이루십니다(17). 하나님의 목적은 온 땅에 하나님 나라(신정)를 세우심인데 놀라운 지혜를 사용하십니다. 그 예로 애굽의 바를 대적자로 광택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자신의 지혜로 친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 주권을 대적할 자 누구인가?(롬9:19-24)찬469장

세상과 천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지 못함이 복음을 받은 자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왜 대적할 수 없습니까? 첫째,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20). 무에서 유로 창조된 우리는 아무 밑천이 없는 존재입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을 고백하며 살아야 할 최대의 극빈 상태입니다. 현재 내가 살아 있는 것 자체만이라도 주의 은혜이지 내 것이란 하나도 없

습니다. 둘째, 토기장이가 자기 뜻대로 그릇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21). 이 사실은 주권을 도전하는 인간의 교만으로 표현됩니다. 셋째,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기 때문입니다(22-24). 그는 분명한 목적을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가지십니다. 복음 안에 보여진 그의 분명한 뜻을 위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 갑시다.

금 주권 위에 서 있는 구원(롬9:25-26)찬252장

사도는 호세아의 글을 인용하면서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내 백성과 내 사랑하는 자란 인정을 받는 은혜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 원리를 어떻게 보여줍니다? 첫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25). 창조 때 아무 것도 없는 기간에서 시작함이 재창조된 구속의 때에 저주받은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둘째, 은혜의 구원이 강조됩니다(26). 내게 무슨 선행의 건덕지가 있어 건지심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행함인 십자가 대속의 죽음 때문에 건진 받은 것입니다. 셋째, 이는 모두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 위에 세워진 구원임을 보여줍니다. 주권위에 세워진 은혜의 구원이란 뜻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는지 확인 합시다.

토 남은 자의 구원(롬9:27-29)찬197장

사도는 이사야가 본 그 은혜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구원의 비밀을 찬양합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첫째, 외형적인 구원을 뛰어 넘는 구원임을 보았습니다(27). 율통적인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을 받지 않고 영적으로 남은 자만이 구원받은 기이한 사실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 속에 남겨두신 택함 받은 백성을 가리킵니다. 둘째,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구원의 세계

를 본 것입니다(28). 창3:15 구원의 원리가 또 다시 나타납니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절대 효과적입니다. 셋째, 친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시는 주권 구원의 세계를 본 것입니다(28-29). 그 신비로운 세계를 목격한 바울처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r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구 광운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매일)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상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침례인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6: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찬양예배: 오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48-3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8-999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43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애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동 신사동 137 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새벽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용마루동 1721 29(잠실동)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전일호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용마루구 안암시도동 50-1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8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로 415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일예배: 오후 9:30 Tel. (0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9-1(1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천동 302-67 (140-031)

소명에 부합되게 사역하라!

처치리더스.컴, 데이빗 핏치 목사의 목회 이중직 감당위한 발상 전환 소개

미국교회에서 이중직(bi-vocational)을 하는 목회자의 삶이란 가히 예술의 경지나 다름없다. 교회 총회 헌법에 목회 이중직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PCA의 경우, 이중직 목회를 교회 개혁의 중요한 전략으로 보면서 교회 개혁의 초기 모델로 이중직을 추천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교단일수록 이중직 불허하는 경향이)다, 생계의 기로에 놓여있는 목회자에게 때로 지나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중직에 대한 관점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성쇠의 변화를 겪었다. 이중직이란 생존 전략이라기보다는 선택으로서 삶의 방식이다. 앞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감당할 필연적 미래다. 물론 신학적, 현실적, 목회적 맹점과 난관이 존재한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중직을 선택한 목회자들을 위해, 목회 이중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한다(Bi-Vocational? How to Merge 2 Jobs Into One Life).

1.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중직 목회자로 살아간다면 보통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돈이나 경력, 업무를 바라봐야 한다. 새로운 일을 할 때 갖는 기대감, 혹은 재정의 충족이나 직무능력 향상에 대한 기대가 전혀 새로운 일들을 만들 어낼 수 있다. 항상 비슷한 패턴의 방식의 만남과 동선을 유지하는 목회와 달리, 이중직을 할 경우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경험, 그리고 이동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세



David Fitch 목사는 미국 Life on the Vine교회담임과 the B. R. Lindner Chair of Evangelical Theology at Northern Seminary에서 강의하고 있다.

'선교적 교회' 관점에서 '찾아가는 복음'과 맞닿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의 삶이라는 시각 바람직

상 사람들을 '찾아가는 복음'과도 맞닿아 있다.

반면 이중직을 할 경우, 목회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처럼, 목회와 경제적 활동 두 가지 일을 동시에 감당한다는 것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버거울 수 있다. 그러나 업무가 능숙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시간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시간 관리나 효율적인 업무 전략 등이 중요하다.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휴식을 취하는 것은 단기적인 전략이 아니라 장기전을 위한 것이며 삶을 위한 기술이다.

그러나 이중직 목회자라면 고민해봐야 할 것이 있다. 언젠가 교회가 양적 혹은 질적으로 성장해서 당신에게 교회의 경제활동을 접고 더 많은 시간을 목회에 할애하기를 요하는 때가 올지도 모른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내게 목회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제기를 토대로 이러한 질문을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로서 정체성을 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찾아와서 쌓은 경력을 포기하고 교회 목회에 전념하더라도 당신의 업무 능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빛나는 일종의 훈장과도 같을 것이다.

따라서 목회자가 결정할 때 돈, 경력, 업무, 직업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2.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중직 사역자라면, 목회 현장에서 적어도 두 명 이상의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사람이라도 이중직 상태로 혼자서 목회를 감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야 각각의 교역자들이 교회 조직과 기능적 업무에 과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동시에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조직공동체'로써 기능할 수 있다. 교역자들은 각자 가진 은사를 중심으로 하나의 교회에서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서로가 각자의 약한 부분을 이해하며 각자의 한계 안에서 미완성된 부분들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게 될 것이다.

좀 더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면, 교역자들은 다른 성도들을 교회 조직의 일원으로서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 결과, 리더십의 위계적 구조 대신 공동체 전체에 수평적으로 상호간 의견 개진하는 것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어느새 교회에서 굳어 버린 교역자와 성도의 관계를 '노동자 vs. 관람객' 문화 혹은 영적 서비스 '제공자 vs. 소비자' 구도에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상호 존중과 신의, 합리적 의사소통의 가능성이 기본 전제로 깔려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역자, 성도 모두의 과제가 될 것이다.

3. 둘이 아닌 하나

'이중직'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삶을 일터, 가정, 또 교회 등으로 구분 지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균형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구분 짓기를 원하곤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중직(bi-vocational)이란 명칭은 사실상 부적절하다. 실제로 '이중(bi)'이라는 것도 없다. 오히려 목회나 다른 경제적 활동, 두 개의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의 삶이라는 시각이 바람직하다.

이중직 목회자의 삶은 가족과 일, 그리고 목회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이도록 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설사 교회에서 사례비를 지급받는 다 하더라도, 목회란 하나의 직업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부름 받은 소명인 것 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목회 이중직을 한다면 '목회자'인 자신을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것은 전적으로 다른 차원의 상상력을 요구하는 일이다.

네덜란드 개혁교회 해방파, 여성안수 허용키로

자매교단 예상교신에 영향 줄까...결정 전 고신대교수 초청 의견청취

네덜란드 개혁교회(Reformed churches) 중 보수 성향이 강한 분파인 해방파(Liberated) 총회가 지난 16일 목사 장로 집사에 대한 여성 안수를 허용했다.

해방파 총회는 원래 같은 뿌리였던 네덜란드 개혁교회(NRC) 교단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신학적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NRC가 여성에 대한 장립집사(안수집사)를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방파 총회는 1886년 시작된 또 다른 네덜란드 개혁교회(RCN)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교단은 1892년 신학자이자 총리를 지낸 아브라함 카이퍼의 지도 아래 급성장했으나 1944년 이른바 '유아세례의 추정적 중생론(지녀들이 선택했다는 추정 아래 유아세례를 준다는 주장)'을 거부하면서 분리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방파 총회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중에서도 보수적 신학을 견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과 자매관계에 있다. 해방파 총회가 이번엔 여성 안수를 허용한 것과 달리 예상교신은 아직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해방파 총회는 여성 안수와 관련해 오랫동안 신학적 고찰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회에서도 자매관계에 있는 전 세계 개혁교회의 사절단을 초청해 여성 안수에 대한 견해를 청취했다. 한국에서는 유해무 고려신학대학원(교의학) 교수가 초청됐다. 유 교수는 성경적 관점에서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이유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신학대학원 외래교수인 임경근(용인다우리교회) 목사는 "해방파 총회의 여성 안수는 교단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네덜란드 개혁교회들은 사회 변화 등 상황에 따라 성경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데 여성 안수 허용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해방파 총회에는 300여 교회, 12만명의 신자들이 소속돼 있다.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자 장 칼뱅과 존 나스, 초빙글리의 신앙 노선을 추구한다.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경우 칼뱅주의에 뿌리를 두면서 벨직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도르트 신경 등을 주된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영국교회 10대들 13% 매주 교회 출석

지난 10년새 4배 증가...일각선 숫자현혹 우려

영국의 10대 크리스천 비율이 지난 10년 사이 4배로 증가했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최근 "영국 10대 청소년 5명 중 1명은 스스로를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에 사는 11-18세 청소년의 21%는 스스로를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신자라고 밝혔다. 13%는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교회통계학 전문가 피터 브리얼리 더럼대 교수가 발표한 통계와 큰 차이를 보인다. 당시 조사에서는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밝힌 청소년이 11-14세는 6%, 15-18세는 5%에 불과했다. 10년 새 영국 10대 크리스천 비율이 4배로 치솟은 것이다.

텔레그래프는 최근 영국 십대선교회(YFC·Youth for Christ)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청소년들이 크리스천이 된 이유는 다양했다. '가족들이 교회에 다녀서'가 45%로 가장 많았고 '미션스쿨에 다니면서'(17%) '교회학교에 다니면서'(15%) '성경을 읽다가'(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교회당을 방문했다'(13%) '교회에서 열리는 결혼식 장례식 세례식 등 예식에 참여했다'(13%) 크리스천이 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다른 교회 행사에 참석했다'(12%) '청소년 모임을 방문했다'(11%) '영적 체험을 통해'(10%) 등으로 답해(중복응답) 예배당 방문이나 예식 참여, 행사·모임 등이 복음의 접촉점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성공회는 청소년 전도에 있어 미션스쿨과 교회 건물 개방이 중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데일 담당자는 "미션스쿨은 10대들이 신앙을 갖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보도후 영국의 기독교 매체들은 대부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10대 크리스천 숫자가 늘었다고 축하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국성공회 치체스터 교구의 아동·청소년 사역 컨설턴트인 알리 캠벨은 "이번 통계 수치만 보고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판단하긴 이르다"며 "실제 10대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숫자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전문가의 비판인 셈이다.

통계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캠벨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 걸 알게 된다.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영국 여론조사업체 컴레스(ComRes)는 10대 크리스천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물었다. 35%는 '매주 교회에 간다', 14%는 '한 달에 한 번 간다'라고 답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크리스천이 절반 정도에 그친 것이다.

'두세 달에 한 번'은 10%였지만 '1년에 한 두 번'이 27%, '아예 안 간다'는 11%로 조사돼 '가나안 성도'(교회에 나가지 않는 크리스천)로 볼 수 있는 경우가 38%나 됐다. 신앙생활의 기본인 교회 출석에서부터 의문을 품게 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실상이 이렇다보니 영국 10대 크리스천 증가에 과연 교회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생긴다. 조사에서는 '언제 크리스천이 됐나'라는 질문에 '모태신앙'이란 답이 64%, '11세가 되기 전'이란 응답이 28%를 차지했다. 결국 8% 정도만 10대 때 처음으로 크리스천이 된 셈이다.

이는 숫자만으로 교회를 평가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편집자 마틴 손더스는 "10대 청소년 5명 중 1명이 크리스천이란 게 사실이면 영국 10대들 사이에 이미 큰 변화가 일어났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